

사설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을 철저히 관철하여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나가자

오는 4일은 역사적인 7.4공동성명 발표 마흔다섯돌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이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는 지금 우리 겨레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을 마련하시어 민족자주통일위업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 보고있다.

돌이켜보면 주체61(1972)년 7.4공동성명의 발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길에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불변불후의 로고와 애국적헌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성된 내외정세는 조선반도에서 영구분리의 위험을 막고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결정적대책을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조성된 정세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60(1971)년 8월 6일 남조선의 집권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 인사들과의 폭넓은 협상방침을 제시하시어 북남대화의 길을 열어놓으시었다.

마침내 나라가 분열된이래 수십년만인 주체61(1972)년 5월 평양에서는 북남고위급정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주체61(1972)년 5월 3일 북남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남측대표들을 접견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

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천명하시었다. 남측대표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시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전적인 공감을 표시하면서 통일의 큰 기쁨으로 삼을것을 약속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주체61(1972)년 7월 4일 북과 남은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을 공식발표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북과 남이 7.4공동성명을 통하여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우리 겨레는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 나갈수 있게 되었다.

참으로 7.4공동성명의 발

표는 조국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열어주고 온 겨레에게 통일의 새 희망을 안겨준 역사적사변이었다. 공동성명이 발표되자 남조선의 신문, 방송들도 《새 민족사의 서광》, 《자주통일의 거보》로 대서특필하였다.

공화국은 지난 기간 7.4공동성명에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꾸준하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현하고있는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시어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나라의 통일을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이어 두 차례의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현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채택하도록 하시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리정표를 마련해주시었다.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의 발표로 민족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지고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이룩되게 되었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어제

오늘도 앞으로도 통일위업의 불변의 지침이다. 우리 민족은 어떤 어렵고 복잡한 정황이 조성되더라도 조국통일3대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 이 원칙에 철저히 의거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만일 지난 세기 70년대에 남조선당국이 민족앞에 다진 그 언약을 지켰더라면 북남관계는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길을 따라 멀리 전진했을것이다. 그러나 《유신정권》은 7.4공동성명에 도장을 찍고 돌아앉아서 《중이 한장에다 운명을 내맡길수 없다.》, 《미군의 남조선주둔은 길면 길수록 좋다.》고 하면서 《대화있는 대결》을 부르짖었다. 결국에 북남관계는 7.4공동성명이 발표되기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온 겨레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포함한 조국통일3대원칙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뜻과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리행하여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새 세기 조국통일의 리정표이다. 이 력사적인 선언들

에 의해 6.15시대에 북남관계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지난 시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놀라운 전변들이 이룩되었다. 남조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는데 관계없이 북남합의들이 충실히 리행되었더라면 북남관계는 복잡한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을것이며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는 이미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을것이다.

그러나 리명박, 박근혜보수 《정권》의 북남공동선언말살책동으로 지난 근 10년간 북남관계는 사상유례가 없는 파국에 처하였다.

지나온 현실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현한 북남선언들의 철저한 리행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도, 통일도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온 겨레는 조국통일의 근본리념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내외분열주의호전세력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말로는 《대화》와 《관계개선》을 떠들면서도 행동으로는 외세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편승하면서 동족대결소동을 벌리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이 야합하여 그칠사이없이 벌리고있는 대규모전쟁연습들 역

시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주되는 화근이다.

대화와 대결, 반공화국제책동과 북남관계개선은 결코 량립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상대를 자극하는 무모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언동을 그만두어야 하며 북남관계에 림하는 자세부터 바로 가져야 한다. 온 겨레는 우리 민족의 화합과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내외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이 땅에서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기 위한 반전평화수호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고 주의주장과 당리당락을 떠나 조국통일의 길에서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시고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민족의 앞길은 창창하며 조국통일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그를 구현한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관철하여 이 땅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워야 할것이다.



8천만겨레를 통일으로 부르는 불멸의 대강

민족분열의 비극적인 역사는 어언 72번째 년회를 새기고있다.

해방의 감격이 외세에 의한 분열의 통함으로써 바뀌어지던 1945년에 태어난 나도 어느덧 손녀를 거느린 70대의 할아버지가 되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목청껏 불렀고 통일을 위한 길에 피와 땀을 바쳤는가. 하지만 아직 통일은 오지 않았다.

통일의 길은 이처럼 멀고 풍파사나운 길이지만 우리 겨레는 비판하지 않고 통일을 환락하며 신심드높이 나아가고있다.

분열의 어둠을 밝혀준 통일의 서광

세월이 흐르면 많은것이 잊혀지고 또 퇴색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아무리 해가 바뀌고 년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고 조금도 빛을 바래지 않는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겨레가 70년대의 문어구에서 꿈과 같이 받아안았던 조국통일3대원칙이다.

지금도 조선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어디서 살든 한목소리로 3대원칙을 말하고 3대원칙이 가리키는대로 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조선에서도 진보개혁세력은 말할것 없고 중도와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들도 공감하고 찬양해나서고있는것이 조국통일3대원칙이다.

이처럼 훌륭한 통일대강이 세상에 발표되던 그날의 감격과 환희는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살아있다.

당시 남조선의 경기도 포천에서 운천재건중학교 교장을 하고있던 나는 선생들과 학부형들, 학생들과 함께 TV로 방영되는 중대보도를 시청하고 있었다.

정각 10시 TV에서 북과 남이 합의한 조국통일3대원칙이 울려나왔다.

순간 이룰수 없는 격정으로 숨이 짝 막히는 감을 느꼈었다.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흐느끼며 덩성덩실 춤을 추었다.

막혔던 목목이 터진듯이 누구라 할것없이 운동장으로 뛰쳐나가 《통일만세!》를 불렀다.

어느 한 선생은 《이제 자주통일이 오는데 미군놈들이 나가지 않고 배겨내나 보자.》고 격양된 심정을 터쳤고 또 어느 학부형은 《이젠 반공교육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 학생은 《야, 우리도 이제는 백두산이나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된다.》고 웨치면서 동료들의 손을 붙잡고 기뻐하기도 하였다.

그때는 누구나 다 통일이 금방 올것처럼 기뻐하였었다.

TV를 보니 서울, 부산, 제주도를 비롯하여 남녘땅 그 어디서나 통일열기로 흥성이었다. 사람들은 만나면 밝은 표정으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신문들에 굵직하게 새겨진 《7.4공동성명은 새 민족사의 서광》, 《자주통일의 거보》, 《일제식민지하에서 해방되던 1945년 8월 15일 조국광복의 감격을 재현하는듯...》이라는 제목들이 지금도 눈에 방불하다.

온 겨레가 조국통일3대원칙의 발표에 그처럼 감격하고 환호한것이 우연한것은 아니었다.

외세가 민족을들로 갈라놓아 분열의 한해 한해가 흐르고 10년, 20년이 지나면서 남녘의 많은 사람들속에서는 통일에 대한 희망이 점점 사그라지고있었다.

1960년대초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프랑카드를 들고 거리에 펼쳐나섰던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도 끝내는 폭압의 광풍에 스러지고말았다.

박정희는 군사쿠데타로 《정권》의 자리에 들어왔은 후에 반공을 《국시》로 선포하고 《보안법》을 휘두르며 통일이란 말만 해도 잡아가두었다.

바로 이러한 때 조국통일3대원칙이 떠오르는 아침해마냥 겨레의 가슴마다에 비쳐들었으니 어찌 강산이 밝아지지 않고 누군들 감격해하지 않을

아가고있다.

절세의 위인이 계시고 통일의 위대한 대강이 겨레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있기때문이다.

오는 7월 4일이 바로 겨레의 가슴에 통일의 밝은 서광을 안겨준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지 꼭 마흔다섯돌이 되는 날이다.

이 뜻깊은 날을 맞으며 나는 민족의 통일력사에 언제나 찬연한 빛을 뿌리는 조국통일3대원칙의 심원한 진리를 되새기며 붓을 들었다.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회원

정규진

부려석회의소집을 받기하시고 한생반공을 한 김구, 김

규식 등도 평양으로 초청하시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숭고한 전통을 마련해주시분도 수령님이시였다. 그는 우리 조선민족모두가 우려하는 단합의 구심점이시였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그 주위를 돌듯이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온 겨레를 안아주시는 민족의 아버지의 넓고 따사로운 품이 있어 지난날의 군고위장성기건 기업가이건 할것없이 각종 남녘동포들이 너도나도 평양을 찾아오고 민족대단합의 격류에 합세할 수 있었다.

그속에는 나도 있고 남조선에서 정계와 《국회》, 군부, 사회계에 몸담고있었던 우리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회원들도 있었으며 7천만 온 겨레가 있었다.

정녕 수령님은 통일에국의 녀으로 겨레의 가슴을 울리시고 사상과 뜻으로 민족을 하나로 묶어세우시며 사랑과 정으로 민족대단합의 력사를 힘차게 추동하신 위인중의 위인이시였다. 조국통일은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 조국통일3대원칙의 세번째 조항 역시 우리 민족이 전쟁의 참화를 다시 겪지 않게 하고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시려는 그이의 뜨거운 민족애, 굳건한 평화수호의지가 어려워오는 귀중한 통일원칙의 하나이다.

수령님께서서는 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한 남조선측대표들을 만나주신 자리에서도 지금 세계의 령강들도 싸우지 않고 서로 좋게 지내자고 하는데 하물며 같은 민족끼리 싸움을 해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수 있는 방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정녕 온 겨레가 감복하고 지지찬동해나서고있는 조국통일3대원칙은 수령님의 통일에국의 정확하고 가장 공명정대하고 끝바르며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나는 당당히 말하고싶다.

3개의 기둥에 의지한 물체는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상태를 유지한다. 자주, 민족대단결, 평화라는 통일의 3대원칙이 역센 기둥이 되어 든든하게 받쳐주고있기에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은 세상의 온갖 풍파에도 흔들림이 없으며 머지않아 일떠서게 될 통일의 큰 집도 만년초석을 기반으로 한 강국이 되리라고 나는 확신하는바이다.

수령님께서는 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한 남조선측 대표들과 하신 담화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의 전문을 받아보게 되었다.

그때의 감동과 충격을 무엇이라 표현할길 없다.

지금껏 어렴풋이 알고있었던 조국통일3대원칙의 진수와 전모가 속속 안겨오고 통일의 려명을 눈앞에 보는 것만 같아 나는 불멸의 로작을 날이 새도록 보고 또 보았었다.

그것은 마디마디, 자자구구가 통일애국의 피와 뉘이 늘어난 위인의 명언들이었고 그 어디서도 볼수 없는 통일의 귀중한 교과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에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통일문제해결의 기초로 될수 있는 근본원칙을 옳게 세워야 한다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라고, 쌍방이 합의하여 세운 근본원칙이 있어야 북과 남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수 있으며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고 하시면서 《나는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여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라고 천명하시였다.

그리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겨레가 들고나아가야 할 세가지 원칙을 하나씩 알기 쉽게 철의 론리로 밝혀주시였다.

가장 심오한 진리일수록 가장 단순하고 가장 소박하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기는 수월하지 않으며 또 누구나 쉬이 내놓을수 있는것도 아니다.

우리 겨레 수천만중에 과연 누가

통일을 하자면 기초로 되는 근본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본 사람이 있었는가.

더우기 그 원칙의 내용이 조선민족 누구나 공감하고 지지하고있는 자주, 민족대단결, 평화통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누군들 생각이나 할수 있었으랴.

그 위대한 통일대원칙은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위인중의 위인이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통일의 명안이었다.

수령님이 아니시라면 아마 우리 겨레는 조국통일3대원칙이라는 말 자체도 몰랐을것이다.

민족의 밝은 앞길은 위인이 밝혀준다.

낮이나 밤이나 남녘인민들과 통일에 대해 생각하고 민족의 지향과 리익을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며 위대한 혁명실천과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한생을 수놓아오신 아버지수령님이시기에 모두의 심장을 울려주는 이런 햇빛같은 통일원칙을 제시하실수 있는것이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수령님의 통일에국의 한평생과 탁월한 사상과 정치경륜, 뜨거운 민족애와 넓은 도량이 안아온 통일의 대강이다.

3대원칙의 첫번째 조항으로 굵직하게 새겨진 자주라는 글발을 볼 때면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을 창시하시어 민족자주위업의 새 시대를 열어주시고 이 땅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주신 현시대 자주정치 거장이신 수령님의 위인상이 승엄히 어려온다.

그이께서는 자주로 나라의 독립도 이룩하시고 인민이 주인된 새 사회도 일떠세워주시였으며 통일문제해결에서도 시종 자주적립장을 견지해오시였다.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조국통일3대원칙의 두번째 조항을 새겨보아도 제일먼저 떠오르는것은 수령님의 민족대단합경륜이다.

우리 수령님처럼 민족의 대단합을 그토록 중시하시고 혁명령도의 전기간에 그것을 숭고한 화폭으로 펼쳐놓으신분은 동서고금에 없었다고 본다.

항일대전의 나날 전민족이 일치단결하여 강도일제를 쳐물리칠때 대한 독립방향을 내놓으시고 천고밀림의 귀틀집과 우등불가에서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한자한자 작성하시어 수령님이시고 해방된 조국에 개신하시어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전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로 건설해야 한다는 애국의 연설로 3천만의 환호를 받으신 절세의 애국자도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해방후 외세의 책동으로 민족분열의 위기가 짙어가고있던 그때 4월남

세기를 이어 빛나는 통일대강

나을수 없었을것이라고 하시며 우리는 이 원칙을 가지고 통일의 길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고 한다.

남조선의 반통일대결세력이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대결소동들을 벌리던 때에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간파하시고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은 끝 수령님께서 제시하시고 공동성명에서 확인된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는것이라고 겨레를 각성시켜주시던 장군님이시였다고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의 통일에국의 경륜이 더한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의 3대원장으로 정립해주시고 겨레가 통일의 길에서 변함없이 곧추 이 길로 가라고 통일거리 남쪽입구에 조국통일3대원장기념탑도 높이 세워주시

나을수 없었을것이라고 하시며 우리는 이 원칙을 가지고 통일의 길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고 한다.

남조선의 반통일대결세력이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대결소동들을 벌리던 때에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간파하시고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은 끝 수령님께서 제시하시고 공동성명에서 확인된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는것이라고 겨레를 각성시켜주시던 장군님이시였다고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의 통일에국의 경륜이 더한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의 3대원장으로 정립해주시고 겨레가 통일의 길에서 변함없이 곧추 이 길로 가라고 통일거리 남쪽입구에 조국통일3대원장기념탑도 높이 세워주시

나을수 없었을것이라고 하시며 우리는 이 원칙을 가지고 통일의 길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고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의 통일에국의 경륜이 더한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의 3대원장으로 정립해주시고 겨레가 통일의 길에서 변함없이 곧추 이 길로 가라고 통일거리 남쪽입구에 조국통일3대원장기념탑도 높이 세워주시

나을수 없었을것이라고 하시며 우리는 이 원칙을 가지고 통일의 길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고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의 통일에국의 경륜이 더한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의 3대원장으로 정립해주시고 겨레가 통일의 길에서 변함없이 곧추 이 길로 가라고 통일거리 남쪽입구에 조국통일3대원장기념탑도 높이 세워주시

정규진

부려석회의소집을 받기하시고 한생반공을 한 김구, 김

규식 등도 평양으로 초청하시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숭고한 전통을 마련해주시분도 수령님이시였다. 그는 우리 조선민족모두가 우려하는 단합의 구심점이시였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그 주위를 돌듯이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온 겨레를 안아주시는 민족의 아버지의 넓고 따사로운 품이 있어 지난날의 군고위장성기건 기업가이건 할것없이 각종 남녘동포들이 너도나도 평양을 찾아오고 민족대단합의 격류에 합세할 수 있었다.

그속에는 나도 있고 남조선에서 정계와 《국회》, 군부, 사회계에 몸담고있었던 우리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회원들도 있었으며 7천만 온 겨레가 있었다.

정녕 수령님은 통일에국의 녀으로 겨레의 가슴을 울리시고 사상과 뜻으로 민족을 하나로 묶어세우시며 사랑과 정으로 민족대단합의 력사를 힘차게 추동하신 위인중의 위인이시였다. 조국통일은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 조국통일3대원칙의 세번째 조항 역시 우리 민족이 전쟁의 참화를 다시 겪지 않게 하고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시려는 그이의 뜨거운 민족애, 굳건한 평화수호의지가 어려워오는 귀중한 통일원칙의 하나이다.

수령님께서서는 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한 남조선측대표들을 만나주신 자리에서도 지금 세계의 령강들도 싸우지 않고 서로 좋게 지내자고 하는데 하물며 같은 민족끼리 싸움을 해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수 있는 방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정녕 온 겨레가 감복하고 지지찬동해나서고있는 조국통일3대원칙은 수령님의 통일에국의 정확하고 가장 공명정대하고 끝바르며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나는 당당히 말하고싶다.

3개의 기둥에 의지한 물체는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상태를 유지한다. 자주, 민족대단결, 평화라는 통일의 3대원칙이 역센 기둥이 되어 든든하게 받쳐주고있기에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은 세상의 온갖 풍파에도 흔들림이 없으며 머지않아 일떠서게 될 통일의 큰 집도 만년초석을 기반으로 한 강국이 되리라고 나는 확신하는바이다.

수령님께서는 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한 남조선측대표들을 만나주신 자리에서도 지금 세계의 령강들도 싸우지 않고 서로 좋게 지내자고 하는데 하물며 같은 민족끼리 싸움을 해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수 있는 방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정녕 온 겨레가 감복하고 지지찬동해나서고있는 조국통일3대원칙은 수령님의 통일에국의 정확하고 가장 공명정대하고 끝바르며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나는 당당히 말하고싶다.

3개의 기둥에 의지한 물체는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상태를 유지한다. 자주, 민족대단결, 평화라는 통일의 3대원칙이 역센 기둥이 되어 든든하게 받쳐주고있기에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은 세상의 온갖 풍파에도 흔들림이 없으며 머지않아 일떠서게 될 통일의 큰 집도 만년초석을 기반으로 한 강국이 되리라고 나는 확신하는바이다.

수령님께서서는 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한 남조선측대표들을 만나주신 자리에서도 지금 세계의 령강들도 싸우지 않고 서로 좋게 지내자고 하는데 하물며 같은 민족끼리 싸움을 해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수 있는 방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정녕 온 겨레가 감복하고 지지찬동해나서고있는 조국통일3대원칙은 수령님의 통일에국의 정확하고 가장 공명정대하고 끝바르며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나는 당당히 말하고싶다.

3개의 기둥에 의지한 물체는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상태를 유지한다. 자주, 민족대단결, 평화라는 통일의 3대원칙이 역센 기둥이 되어 든든하게 받쳐주고있기에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은 세상의 온갖 풍파에도 흔들림이 없으며 머지않아 일떠서게 될 통일의 큰 집도 만년초석을 기반으로 한 강국이 되리라고 나는 확신하는바이다.

수령님께서서는 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한 남조선측대표들을 만나주신 자리에서도 지금 세계의 령강들도 싸우지 않고 서로 좋게 지내자고 하는데 하물며 같은 민족끼리 싸움을 해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수 있는 방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정녕 온 겨레가 감복하고 지지찬동해나서고있는 조국통일3대원칙은 수령님의 통일에국의 정확하고 가장 공명정대하고 끝바르며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나는 당당히 말하고싶다.

3개의 기둥에 의지한 물체는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상태를 유지한다. 자주, 민족대단결, 평화라는 통일의 3대원칙이 역센 기둥이 되어 든든하게 받쳐주고있기에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은 세상의 온갖 풍파에도 흔들림이 없으며 머지않아 일떠서게 될 통일의 큰 집도 만년초석을 기반으로 한 강국이 되리라고 나는 확신하는바이다.

수령님께서서는 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한 남조선측대표들을 만나주신 자리에서도 지금 세계의 령강들도 싸우지 않고 서로 좋게 지내자고 하는데 하물며 같은 민족끼리 싸움을 해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수 있는 방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정녕 온 겨레가 감복하고 지지찬동해나서고있는 조국통일3대원칙은 수령님의 통일에국의 정확하고 가장 공명정대하고 끝바르며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나는 당당히 말하고싶다.

3개의 기둥에 의지한 물체는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상태를 유지한다. 자주, 민족대단결, 평화라는 통일의 3대원칙이 역센 기둥이 되어 든든하게 받쳐주고있기에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은 세상의 온갖 풍파에도 흔들림이 없으며 머지않아 일떠서게 될 통일의 큰 집도 만년초석을 기반으로 한 강국이 되리라고 나는 확신하는바이다.

수령님께서서는 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한 남조선측대표들을 만나주신 자리에서도 지금 세계의 령강들도 싸우지 않고 서로 좋게 지내자고 하는데 하물며 같은 민족끼리 싸움을 해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수 있는 방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정녕 온 겨레가 감복하고 지지찬동해나서고있는 조국통일3대원칙은 수령님의 통일에국의 정확하고 가장 공명정대하고 끝바르며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나는 당당히 말하고싶다.

3개의 기둥에 의지한 물체는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상태를 유지한다. 자주, 민족대단결, 평화라는 통일의 3대원칙이 역센 기둥이 되어 든든하게 받쳐주고있기에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은 세상의 온갖 풍파에도 흔들림이 없으며 머지않아 일떠서게 될 통일의 큰 집도 만년초석을 기반으로 한 강국이 되리라고 나는 확신하는바이다.

수령님께서서는 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한 남조선측대표들을 만나주신 자리에서도 지금 세계의 령강들도 싸우지 않고 서로 좋게 지내자고 하는데 하물며 같은 민족끼리 싸움을 해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수 있는 방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이야기는 오늘도 겨레의 가슴을 울려주고있다.

나는 때때로 휴식일이면 가족들과 함께 3대원장기념탑을 찾곤 한다. 금시라도 열사안고 통일만세를 부를듯 두팔을 힘껏 뻗쳐 조선지도가 새겨진 3대원장마크를 높이 받아들여올린 북남 두 녀인의 모습을 형상한 기념탑앞에 서게 되면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일에국의 한생이 뜨겁게 어려오고 3대원장을 따르는 길에 통일이 온다는 절세위인들의 절절하신 음성기 귀전에 들려오는듯싶다.

어버이 장군님께서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현하여 겨레에게 안겨주신 6.15공동선언, 격동의 자주통일시대에 우리 겨레는 이 3대원장기념탑앞에서 뜻깊은 통일행사도 가지고 그 담아래 제주도 한끝까지 잇닿은 통일의 길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오가며 통일대추전도 하고 다채로운 계층별 통일행사들도 하며 삼천리가 들썩하게 《우리 민족끼리》를 웨치였다.

나도 그때 평양과 개성 등지에서 진행된 통일행사에 참가하여 3대원장이 구현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 얼마나 위력하고 위대한 통일리념인가 하는것을 온몸으로 뜨겁게 절감하곤 하였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겨레에게 안겨주신 6.15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에는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조선민족이 주인이 되어 통일문제를 풀어나가는 자주도 있고 온 겨레를 하나로 되게 하는 화해와 단합도 있으며 전쟁을 방지하여 조선민족의 운명을 지켜주는 소중한 평화도 있다.

이미 오래전에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조국통일3대원칙을 철저히 구현해왔더라면 나라의 통일은 이룩되기도 남았을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북남의 소중한 합의를 《유신》독재수립에 악용하며 《승공통일》, 《대화있는 대결》을 떠들어낸 박정희대국 《정권》의 반통일대결책동에 의해 공동성명이 유린되였듯이 《유신》의 바통을 이어받은 리명박, 박근혜연역 《정권》이 지난 9년간 북남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동족대결책동에 매달림으로써 북남관계는 다시 70년대이전의 대결국면으로 돌아가고 조선반도전쟁위험은 최대로 고조되였다.

어둠속에서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것이 빛이며 진리의 밝은 빛은 결코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수 없고 없앨수 없다.

삼천리가 통일환희에 차넘쳤던 7.4공동성명이 발표되던 그 격동의 나날과 이제 통일이구나 하고 모두가 가슴뭉클하게 느꼈던 6.15시대와 그 이후의 숨막히는 북남관계 암흑기는 민족이 평화와 통일으로 가는 길이 과연 어느 길인가를 뚜렷이 옹변해준다고 본다.

그릴수록 통일의 고귀한 지침과 라침관, 격동의 자주통일시대를 펼쳐주신 수령님이 더욱 그림고 장군님의 은덕이 고마워 오늘도 눈시울을 적시는 북과 남의 우리 겨레이다.

민족이 바라는 통일은 3대원칙이 포함되어있는 조국통일3대원장파 북남공동선언을 끝까지 고수리행해나가는데 있다는것은 홀러는 조국통일운동사의 귀중한 총화이다.

그것을 철리로 간직하시고 3대원장관철의 길, 북남공동선언고수리행의 길로 겨레를 이끌어가고계시는 조국통일의 찬란한 구성은 바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이다.

지금도 지난해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의 높은 연단에서 조국통일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보고를 잊을수가 없다. 온 겨레와 세계가 지켜보는 속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제적통일로선이라고, 주제적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3대원장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있다고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3 면 으 로 계 속)

감히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해칠 천인공노할 흉계를 꾸민 특대형국가 테로범죄자들을 극형에 처한다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소 연합성명

력사의 그 어떤 돌풍속에서도 끄떡없이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불변체도를 따라 질풍노도치며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기상에 혼비백산한 적들의 단말막적막악이 극히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노린 적들의 특대형국가테로범죄행위 가련이 드러나고있는 사실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얼마전 미중앙정보국과 피뢰국정원것들이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상대로 생화학물질에 의한 국가테로를 감행할 목적에 우리 내부에 침투시켰던 극악무도한 테로범죄자들이 적발된데 이어 천하악귀 박근혜가 집권기간 피뢰국정원것들과 작당하여 《북지도부제거》 작전을 추진한 사실이 또 공개되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서리발같은 분노심을 무섭게 폭발시키고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박근혜는 2015년말부터 《북최고지도부를 교체하기 위한 공작》을 은밀하게 추진하였으며 피뢰국정원이 주도하여 작성한 이와 관련한 비밀작전계획에는 감히 《암살》음모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당시 박근혜는 《북의 정권교체가 어려울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보고서는 묵살해버리고 《북의 상황이 불안정하여 정권교체가 있을수 있다.》는 내용의 피뢰국정원보고서에 대해서만 반색을 하면서 《북지도부 교체》를 목표로 한 국정원의 비밀작전계획을 검토하고 직접 수표하였다고 한다.

천하에 극악무도한 악당들은 실제로 작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무력충돌사태로 번져질수 있으므로 제놈들이 개입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하면서 자동차나 련차 등에 의한 사고로 가장하는 방법까지 예견하였지만 우리의 경계가 너무나 엄격하여 실행하지 못하였으며 그후 박근혜의 탄핵, 파면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비밀작전계획은 자동폐기되었다고 한다.

드러난 사실은 그 무엇으로써도 결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우리를 《굴복》시킬수도, 《변화》시킬수도 없다는것을 판단한 적들이 감히 《북지도부교체》에 허황한 기대를 걸고 그 실행을 위해 온갖 비열하고 잔악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소는 우리 공화국을 기어코 암살하려는 적들의 책동이 우리 최고수뇌부를 노린 특대형국가테로범죄를 감행하는 극히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감히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해칠 천인공노할 흉계를 꾸미고 추진한 특대형국가테로범죄자들인 박근혜역도와 전 피뢰국정원 원장 리병호 일당을 극형에 처한다는것을 내외에 선포한다.

우리의 최고수뇌부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강대성의 상징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삶과 운명의 전부이다.

우리 최고수뇌부에 도전해나서고 감히 수뇌부의 안전을 해치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 세상끝에라도 따라가고 천길땅속을 파헤쳐서라도 기어코 찾아내어 더러운 몸뚱아리를 무자비하게 칼탕쳐버려야 한다는것이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를 생명의

로 간주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징벌의지이다.

공화국형법에는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노리고 감행한 특대형국가테로범죄의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가 공화국법의 형사소추대상이며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추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것이 명백히 규제되어있다.

수령보위를 최고의 사명으로 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소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자비한 징벌의지와 공화국형법에 따라 감히 우리 최고수뇌부를 해칠 특대형국가테로흉계를 꾸미고 그것을 추진한 박근혜역도와 전 피뢰국정원 원장 리병호일당을 최고의 극형에 처하기로 하였다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다.

박근혜와 리병호일당은 물론 피뢰국정원놈들도 지금 이 시각부터 누구에 의해 어느때, 어느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처참한 개죽음을 당하여도 항소할수 없다.

2. 남조선당국은 우리 최고수뇌부를 노린 특대형국가테로범죄행위를 감행한 박근혜역도와 전 피뢰국정원 원장 리병호일당을 국제협약에 따라 지체없이 우리 공화국에 넘겨야 한다.

1994년 유엔총회결의 《국제테로근절조치에 관한 선언》에는 국제테로범죄자가 자기 나라 령역안에 있는 경우 그를 체포하여 본국의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하거나 피해를 입은 나라에 인도하여 엄격히 처벌하도록 규제되어있다.

또한 유엔국제형사재판법협약 제16조 《범죄자인도》 4항에는 《범인인도조약의 체결을 인도의

조건부로 삼는 당사국이 범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범인인도요청을 받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 조항이 적용되는 범죄와 관련하여 본 협약을 인도를 위한 법률적기초로 간주할수 있다.》고 규제되어있다.

지난 5월 국가보위성 대변인성명을 통하여 공개된바와 같이 박근혜역도와 리병호일당은 테로의 왕초인 미국의 부추김과 조종밑에 지금까지 감행하여온 치밀리는 특대형국가테로범죄만으로도 열백번 통지처참을 당해 마땅할 천하의 악마들이다.

이번에 또다시 드러난 특대형국가테로기도는 피뢰국정원이 우리 최고수뇌부를 노리고 감행한 극히 엄중하고 비열한 조직적범죄로서 그 직접적조직자인 박근혜역도와 리병호일당은 옹당 우리 공화국형법에 따라 가장 무거운 형사책임을 져야 할 특구범죄자들이다.

남조선당국은 극악한 특대형국가테로범죄조직자들인 박근혜역도와 리병호일당을 국제협약과 법규에 따라 우리 공화국으로 지체없이 넘겨야 한다.

만일 우리의 최고존엄과 관련되어있는 이 중대한 요구를 외면하는 경우 그것이 차후 북남관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겠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남조선당국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것이다.

3.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우리 최고수뇌부를 노린 특대형국가테로범죄를 또다시 기도하는 경우 그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은 전시법에 따라 사전통보없이 즉결처형한다는것을 선포한다.

1953년에 정전협정을 맺은 우리와 미국사이는 사실상 전쟁을 일시 중

단한 상태이며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다.

따라서 교전쌍방에 대한 모든 적대와 도발행위들은 철저히 전시법이 적용되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적대행위들도 전시법에 따라 처리된다.

사실상 교전상태에 있는 상대측 지도부에 대한 테로행위는 군사적도발의 극치이며 전쟁발발과 같은 최악의 사태를 몰아올수 있는 특대형범죄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우리 최고수뇌부를 노린 특대형국가테로범죄를 또다시 기도하는 경우 그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을 철저히 추적하여 전시법에 따라 사전통보없이 즉결처형할것이라는데 대해 공식 선포한다.

그러한 범죄가 우리 공화국경내에서 감행되든 경외에서 감행되든 관계없이 우리 식의 무자비한 징벌조치에 따라 현지에서 즉시 인민의 이름으로 무자비한 형이 집행될것이다.

다시한번 명백히 하건대 우리의 최고존엄에 감히 도전하는자들은 이 하늘아래서 살아숨쉴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거나 우리의 단호한 조치에 도전해나오는 경우 그 대가를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물리적방법으로 치르게 될것이라는데 대하여 우리는 숨기지 않는다.

하늘의 태양에 감히 도전해나서는 자들은 천벌을 면치 못할것이다.

주체106(2017)년 6월 28일 평양

(2면에서 계속)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조국통일노선과 방침들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여 장장 70여년에 걸친 민족분열사에 종지부를 찍고 통일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확고부동한 통일의지가 어리었다고 본다.

통일의 가장 곧바른 앞길을 것처럼 명확히, 확신성있게 천명하시는 원수님의 연설을 뜨거운 격정속에 접하면서 나와 우리 가족, 북과 남의 온 겨레는 머지않아 밝아올 자주통일의 아침을 보았고 우리 민족을 통일번영의 찬란한 배일에 인도해주실 통일태양의 쉼고 림름하신 모습을 보았다.

조국이 통일되면 우리 나라는 8천만의 인구나 막강한 국력을 가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민족의 강요한 정신과 뛰어난 슬기로 세계를 앞서나가는 선진문명국,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정의의 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게 될것이라는 그날의 원수님의 말씀은 일찌기 조국통일3대원칙을 천명하시던 나날 남조선측대표들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북과 남이 합작하여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면 우리 나라는 일본이나 그밖에 발전되었다고 하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잘사는 나라로 될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던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그 음성이었다.

그리고 2000년 8월 남조선의 《현대그림》 일행을 접견해주신 자리에서 지금 좀 발전되었다고 하는 나라들이 선진8개국이라고 하면서 우쭐렁거리는데 북남이 힘을 합치면 능히 세계 으뜸의 강국이 될수 있다고 하시던 아버지장군님의 뜨거운 민족애와 자신감에 넘치신 그 자애의 음성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2017년 신년사에서 드 올해는 력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마흔다섯돛과 10.4선언발표 열돛이 되는 해이라고 하시면서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토로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원수님의 가슴속 깊은 곳에 뜨겁게 고

페치는데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 유혼을 끝까지 관철하실 불같은 일념이고 역센 의지이다.

실사 그 길에 험산준령이 가로막아있어도 뚫고 넘어 지리밭이 놓여있다 해도 헤쳐 넘어 통일의 찬란한 해돋이를 마중해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의 신념과 역센 담력, 의지를 과연 그 누가 당해낼것인가.

바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일유혼을 받들어 우리 인민을 더 잘살게 하고 통일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시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찬바람, 눈비를 다 맞으시고 무더위에 옷을 땀으로 적시시며 선군경도의 멀고험한 길에 계시면서 나라의 자위적군력을 최대로 강화해나가고 평화와 통일의 암적존재인 미국을 끝없는 공포와 파멸의 구렁렁이로 몰아가신다.

미국은 우리에게 전쟁을 강요하려 들지만 천출명장이 계시고 자위의 핵억제력이 있기에 이 땅의 남녘로소는 전쟁에 대한 불안을 모르고 배심든듯히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창조와 건설의 동음을 힘차게 울려가고있는것이다.

통일은 다른 누가 아닌 우리 민족자신의 힘으로 오며 철세위인의 거룩한 손길 아래 이 땅우에 찬연히 밝아온다.

나는 공화국의 품에 안긴후 평양에서 태어난 우리 자식들의 이름을 간절할 통일소원을 담아 그리고 통일조국에서 행복하게 살라는 의미에서 딸은 《통일》, 아들은 《조국》이라고 지었다.

통일조국. 얼마나 안아보고싶은 우리 조국이요 얼마나 가슴후련하게 자랑하고싶은 우리의 미래인가.

그 눈부시게 아름다운 통일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나와 우리 후대들이 마중가고 온 겨레가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인 대진군으로 앞당겨온다.

통일은 머지않은 우리의 밝은 래일이다.

그 앞길에 조국통일3대원장과 북남공동선언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불멸의 대강으로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특대형국가테로범죄자들에게는 가차없는 징벌이 차려진다

최근 천하의 악녀인 박근혜가 집권기간 《국정원》과 거역들과 작당하여 감히 공화국의 최고수뇌부를 노린 테로작전을 추진한 사실이 또다시 공개되어 만사람을 경악케 하고 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박근혜와 《국정원》출개들은 2015년말부터 《북최고지도부를 교체하기 위한 공작》을 은밀하게 추진하였다. 이 자들은 실제로 작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무력충돌사태로 번져질수 있으므로 제놈들이 개입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하면서 자동차나 련차 등에 의한 사고로 가장하는 방법까지 예견하였지만 경계가 너무나 엄격하여 실행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지난 5월 악의 본산인 미중앙정보국과 남조선 《국정원》이 공화국의 최고수뇌부를 상대로 생화학물질에 의한 국가테로를 감행할 목적에 공화국내부에 침투시켰던 테로범죄일이 적발된데 이어 또다시 드러난 이번 테로흉계는 지금 공화국 천만군민의 심장을 증오심과 복수심으로 끓여 번지게 하고있다.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공화국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소는 련합

성명을 발표하여 천인공노할 흉계를 꾸민 특대형국가테로범죄자인 박근혜역도와 전 《국정원》 원장 리병호일당을 최고의 극형에 처한다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였다.

공화국형법에는 최고수뇌부를 노리고 감행한 특대형국가테로범죄의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가 공화국법의 형사소추대상이며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추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것이 명백히 규제되어있다.

남조선당국은 감히 공화국의 최고수뇌부를 노린 특대형국가테로행위를 감행한 박근혜역도와 전 《국정원》 원장 리병호일당을 국제협약에 따라 지체없이 공화국에 넘겨야 한다.

1994년 유엔총회결의 《국제테로근절조치에 관한 선언》에는 국제테로범죄자가 자기 나라 령역안에 있는 경우 그를 체포하여 본국의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하거나 피해를 입은 나라에 인도하여 엄격히 처벌하도록 규제되어있다. 또한 유엔국제형사재판법협약 제16조 《범죄자인도》 4항에는 《범인인도조약의 체결을 인도의

조건부로 삼는 당사국이 범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범인인도요청을 받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 조항이 적용되는 범죄와 관련하여 본 협약을 인도를 위한 법률적기초로 간주할수 있다.》고 규제되어있다.

른 당사국으로부터 범인인도요청을 받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 조항이 적용되는 범죄와 관련하여 본 협약을 인도를 위한 법률적기초로 간주할수 있다.》고 규제되어있다.

만일 특대형국가테로범죄자들을 넘길데 대한 공화국의 중대한 요구를 외면하는 경우 그것이 차후 북남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남조선당국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것이다.

공화국은 최고수뇌부를 노린 특대형국가테로범죄를 기도하는 조

본사기자 김철민

전시법에 따라 처형하겠다

가 하는것에 대해서는 구태여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실상 교전상태에 있는 상대측 지도부에 대한 테로행위는 군사적도발의 극치이며 전쟁발발과 같은 최악의 사태를 몰아올수 있는 특대형범죄이다. 따라서 공화국의 최고수뇌부에 대한 특대형국가테로범죄를 기도한 범죄자들은 전시법에 따라 사전통고없이 즉결처형되는것이 마땅하다.

특대형국가테로범죄에는 시효가 없으며 범죄자들은 반드시 공화국법의 심판을 받을것이다.

중앙검찰소 검사 최재현

장 시

자 주의 길 에 통 일 이 있 다

— 7.4 공동성명 발표 45돐을 맞으며 —

리 송 일

산천도 감격에 설레이고
남해의 푸른 물도 격정에 춤을 추던
그날을 속삭이며 오는가
불러 가슴 벅찬 7월 4일이여

마흔다섯해란 세월이 흘렀어도
어찌 그날의 환희 잊을수 있으랴
메아리쳐와라
7.4공동성명이 발표되던 순간
하늘땅을 진감하던 겨레의 함성

공장에서, 전야에서, 어장에서...
글썸던 아이들도, 마을의 로인들도
방송원의 열띤 목소리에
저저마다 목메어 화답했더라
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북녘이라 남녘이라 달랐으리오
이제는 통일이 되었다고
못 가던 고향땅 가고
헤어졌던 부모처자, 형제들
이젠 한지붕아래서 살게 되었다고
너도나도 기쁨에 덩실덩실

이날을 겨레에게 안겨주시려
우리 수령님
헤치신 파란만장, 바치신 로고
오늘도 눈시울 뜨겁게 적셔주나니

20성상 혈전만리 만고공상
항일대전에 쌓이신 피로 못 푸신채
그이는 통일장정에 오르셨더라
갈라진 강도
헤어진 겨레의 아픔 안으시고

말해다오, 해방산기슭의 력사의 집이여
너의 트랙으로 들어서던 남녘겨레들 이야기
4월남북련석회의로 들끓던 모란봉지하극장
민족대단합의 경륜 펼친 쑥섬이여...

해방의 기쁨이 분렬의 비극으로
이어진 그 슬픔 얼마나 크시었으면
우리 수령님
남쪽으로 밀려가는 장마구름 보셔도
큰물에 나았을라

온밤 남녘동포들격정에 잠 못이루시고
현지도도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고향이 남녘이라면 만사를 미루시며
남다른 사랑 부어주시었으랴

말해보자, 45년전 잊지 못할 5월의 그날이여
머나먼 현지도도길 다녀오신 우리 수령님
삼라만상이 굳잠에 들고
분렬시간만이 찰찰찰카
무정히도 세월을 삼키던 그 밤
또다시 잠 못드신 그 사연을...

분렬로 당하는 겨레의 고통
동강나 몸부림치는 조국의 아픔
한시라도 끝장내시려
깊은 밤 휴식도 뒤로 미루시고
남측대표를 만나주신 수령님

한초한초 다가들던 자정
그것을 분렬의 끝으로
통일조선의 시작으로 만드시려는듯
통일의 아침을 불러
통일의 초석을 안겨주시었어라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통일문제해결의 기초로 될수 있는
근본원칙을 옹계 세워야 합니다

쌍방이 합의하여 세운 근본원칙이 있어야
북과 남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수 있으며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습니다

마디마디에 통일의 확신을 담으시며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통일방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나니

오, 그것은
민족의 통일지향이 구절구절 백박치는
애국의 선언이었다
겨레가 일일천추 바라는 통일조국
눈앞에 그려주는 위대한 설계도였다

돌이켜보자
지난날 외세를 등에 업고
반목질시 대결로 치달아온 비극의 세월
그 세월이 준것은 고통과 아픔뿐
그래서 우리 겨레 얻은것은
쓰라린 전쟁의 참화만이 아니었던가

외세가 가른 땅 외세가 합쳐주랴
우리 민족 사이에
외세가 끼우면 썰기질뿐
우리의 통일은
한피줄 한겨레인 조선사람끼리

해빛으로 려명이 밝아오듯
《반공》도 머리속이고 강산도 동할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
숨막히던 분렬의 장막 밀어제끼며
삼천리에 안아왔더라
통일의 리정표 펼치는 7월 4일을

그날부터였어라
수령님 열어주신 자주의 진로따라
통일사절들 강도를 누볐다
평양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평양으로
민족단합의 물결 굽이쳤다

북남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
평양과 서울사이에 20회선의 전화선 련결...
날마다 판문점이 흥성이고
백두산이 들썩이면 한나산이 화답하며
삼천리에 도도하던 통일기운

허나 우리 그때 어이 알았으랴
공동성명에 도장 찍고 돌아앉은 매국의 무
리들

《대화있는 대결》, 《대화있는 경쟁》 떠벌
이며
매국적인 《특별성명》 나발질로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고
분렬의 콩크리트장벽구축으로
《두개 조선》 흥심을 서슴없이 드러내놓
을줄

삼천리에 또다시 동족대결과 불신
그 광란하는 마파람에 휘몰려
오늘일가 래일일가
손잡아 그리던 고향길 천리만리 멀어지고
상봉의 꿈 부풀던 가슴들 갈가리 찢겨지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은 겨레가 환호했고 따르던 통일의 대강
그 길을 따라 오늘에로 왔으면
어이 알랴

오매불망 민족의 숙원 조국통일
조국통일의 그날에 우리 지금 살고있을줄

력사는 보여주고있어라
외세에 민족의 운명 내맡기고
분렬에 목숨을 건 역적들이 있는 한
이 땅엔 언제가도 민족이 바라는
통일이 결코 오지 않는다는것을

7.4의 뜻이 소중함을 귀중함을
심장으로 새겨안은 겨레
흘러온 세월은 말해주고있어라

자주에 살면 통일에 살고
민족대단결은 곧 분렬을 이기는 힘임을

민족이 추켜들 통일의 기치
겨레가 나아갈 통일의 리정표
7.4의 정신을 안겨주신 수령님 업적
오늘도 길이 전해가는 7월
자주로 안아오라 하나된 삼천리를
겨레의 가슴 흔들며 소리쳐 웨친다

* *
세월이 흐르고 흐른다 해도
진리의 빛은 바래는 법이 없거늘
45년 기나긴 세월의 년륜만 감졌던가
이 땅우엔 7.4의 높은 뜻 이어
장쾌한 통일의 력사가 굽이쳐 흘렀다

겨레는 보지 않았더라
분렬의 상징 판문점
통일의 상징으로 만드시려
결연히 나서신 장군님 모습에서
7.4의 뜻 이어가시는 불굴의 의지를

판문점의 통일친필비앞에서
수령님 통일한생 송엄히 추억하시며
만고에 빛날 통일의 대강들
조국통일3대현장으로 정립하여주셨나니

불변의 통일기치 진로를 밝혀주신
판문점의 그 길은 어디로 이어졌던가
수령님 자주의 뜻대로
장군님 밝혀주신 우리 민족끼리
6.15시대로 즐기차게 이어졌어라

아, 분렬을 이긴 6.15!
열화갈던 감격의 그날은
수령님의 자주적 조국통일로선
조국통일3대현장으로 추켜드신
김정일장군님 새 세기에 안아오신
민족사적 대사변이였거니

7월 4일 그날의 감격
그날의 환희가 다시 찾아왔는가
분렬의 콩크리트장벽에 파렬구가 나던
격동의 그 세월
감동의 6.15시대에

그 나날에 우리 알았어라
통일은 어떻게 오는것인지
통일은 그 누가 가져다주는것 아니라
우리의 손 우리의 힘으로
우리 민족끼리 이루어야 할
성스런 민족의 대업임을

알았노라, 우리 겨레
외세없이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어깨걸고
백두산에서, 금강산에서, 한나산에서...
통일의 활로를 열어가며

심장에 쪼아 박았노라
우리 민족끼리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서로의 마음 하나로 합치는
그것이 통일임을
자주의 길에 통일이 있음을

이 진리 가슴에 안아
분렬광풍에 흔들림 있었더라
6.15시대를 되돌려세우려
아무리 분렬세력 날뛰었어도
겨레의 가슴에 깊이 내린
6.15의 소중한 뜻 뿌리뽑지 못해

보라
《잃어버린 10년》을 떠들어대며
《국제공조》나발을 불어대며
외세에 빌붙고 나서는 사대매국노들의 추태
어떻게 민심의 심판을 받았는가를

어떤 운명의 종착점에 이르렀는가를

지난 력사를 돌이켜보아도
흘러가고 흘러오는 어제와 오늘을 보아도
통일은 이 땅의 통일은
오직 우리 민족 자신이 이루어야 함을
뼈저린 교훈으로 보여주고있거니

하기에 우리 원수님
뜻깊게 말씀하지 않았던가
—승배를 해도 자기 민족을 숭배하고
믿어도 자기 민족의 힘을 믿어야 하며
통일론의를 해도 자기 민족과 하여야 합
니다

가슴치는 그이의 말씀
민족중시의 경륜 빛박치는 그 말씀
민족을 제일 믿으시고
민족을 제일 숭배하시는
그이는 민족의 참다운 령도자
그이는 자주의 화신

멀리 세월이 흘러
7.4는 지나간 과거의 옛일이랴
그 뜻을 이어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어
오늘도 그 정신 길이 빛나고있거니

지금도 귀전에 쟁쟁해라
새해신년사에서 하신 그이의 말씀
—올해는 력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마흔다섯돐과
10.4선언발표 열돐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에 우리는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겨레여
우리 또 감격에 들지 않았더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연단에서
우리 원수님 하시던 말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그이의 불굴이 열렬한 호소
그 호소를 따라 노도쳐 일떠선
겨레의 진군길 그 누가 감히 막으랴
외세와 매국노들
갖은 횡포와 온갖 도전 짓부시며
겨레는 가리라 조국통일로

이 7월에 다시 목메어 부르노라
세월은 가고 세대는 바뀌어도
영원불멸할 우리 민족의 기치
수령님 펼쳐주신 통일의 리정표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로!

멀지않아 세계는 보게 되리라
민족의 드세찬 힘으로 외세를 몰아내고
손잡고 어깨걸고 보무당당히
통일의 대문으로 들어서는 조선민족을

아, 그날을 그려주며 7월은 오는가
북남삼천리에 통일의 열풍
민족자주의 열기를 더해주며
7월은 소리높이 웨친다
자주의 길에 통일이 있다

조선의 사회경제적 성과들

- 유엔주재 《글로벌 리서치》 특파원 칼라 스테아의 평양방문기 -

2017년 5월 25일에 조선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후 나는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의 15개 성원국들이 새로운 유엔결의 2356호를 채택한데 대한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새로운 결의는 가중되는 침략행위로부터 자기의 조국을 지켜내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싸우고있는 영웅적이고 진보적인 조선인민들을 실식시키기 위한 제재결의이다.

어린이들의 천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현대적인 보건제도와 교육제도를 무상으로 실시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유엔의 새로운 제재결의는 미국에 아무굴종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진면모를 다시한번 보여주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서방언론들에 의해 세뇌당하여 조선의 현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선방문을 통해 알게 된 사실들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들은 나를 공격하였다.

강조조건대 그들은 조선에 단 한번도 가지 못하였으며 다만 정확한 사실에 대한 결립과 무지, 고집으로 저능아마냥 우겨대고있다.

1

조선에 대한 심도있는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후 나는 이 나라의 정부와 인민들이 이룩한 찬양할만 한 성과들에 대해 몇마디의 글이나 사진 몇장으로도 다 전할수 없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날 조선은 미국의 《리익》에 아무굴종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사회경제적평등과 민주주의의 고상한 모범으로 되고있는 이 나라를 굴복시키기 위하여 채택한 범죄적인 경제제재속에서도 자기의 사회주의적발전을 영웅적으로 고수해나가고있다.

조선은 미국과 남조선의 계속되는 전쟁연습과 경제적 및 핵전쟁 위협공갈속에서도 사회경제적평등을 위하여 과감히 전진하고있는 귀감을 보여주고있다.

조선을 방문하기에 앞서 나는 평양에서 만나보고싶은 사람들과 진행하고싶은 일들에 대해 통지하였으며 나의 제의들은 거의나 접수되었다.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가는 고려항공기 안에서 나는 열차리에 앉은 조선사람과의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조선사람들은 다 성미가 까다롭고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서방의 선전과는 달리 아주 상냥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였다.

나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선사람들이야말로 흥미진진하고 매력있는 사람들이라는 데 대해 느끼게 되었다.

5월 19일 아침 우리는 옥류 아동병원을 참관하였다.

국가가 어린이들을 위한 마련한 선물인 옥류아동병원은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모든것이 아주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건물전체가 치료사업에 이바지하고있었다.

여기서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어린이들은 전문교육을 받은 의사와 간호원들의 보살핌과 최첨단의료설비들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고있었다.

류사한 병원들이 전국에 세워져있고 의사들은 먼거리의로 봉사체계를 통해 평양에 있는 이 중앙병원의 의사와 협의를 할수 있었다.

지방 병원들에서 치료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 구급환자들은 직송기에 실려 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는다. 옥류아동병원앞 마당에는 직승기착륙장이 갖추어져있었다.

모든 의료봉사는 무료로 제공되고있으며 전국의 어린이들이 이러한 의료시설들을 리용할수 있었다.

나는 세계 어느곳에서도 어린이들과 심지어 그들의 부모들의 육체적 및 정신적건강에 대해 이렇듯 관심해주는 높은 수준의 아동병원을 보지 못하였다.

질름발이로 태어나 정상적으로 걸을수 없는 어린이들을 위한 회복치료실 역시 훌륭하였다.

건강회복을 위해 회복운동치료를 열심히 받고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은 참으로 고무적이고 감동적이었다.

나는 이전에 조선녀성들에 대한 자료를 본적이 있는데 놀랄게도 내가 병원에서 목격한 녀성들은 우아하고 고상한 옷차림을 하고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사람들은 굶주리고 병약한 생활로 하여 어두침침한 단조로운 색깔의 초라한 옷차림을 하고있다고 생각하는 바깥세계의 편견을 완전히 깨뜨려버렸다.

방문일정이 계속될수록 나는 조선에서 유엔의 2030년 지속적개발목표들중의 하나인 남녀평등에 관한 문제에서 이미 놀라운 전진이 이룩되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으로 우리는 가장 현대적인 안과의료설비들과 최상의 치료봉사를 제공하고있는 류경안과종합병원을 돌아보았다.

나는 여기서 내가 리용하는 접촉렌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뉴욕에 있는 최고의 안과의사의 검사결과와 일치하였다.

나는 이것을 통해 병원설비들의 수준을 직접 확인할수 있었다.

병원은 각이한 연령의 환자들로 붐비고있었고 모든 치료봉사는 역시 무료로 제공되고있었다.

안내원의 말에 의하면 의사와 그 가족들의 생활비는 국가가 보장하기때문에 의사들이 치료활동에 전심전력할수 있다고 하였다.

이날 오후 우리는 평양제1중학교를 참관하였으며 나의 요청으로 생물학과 화학, 물리학 강의실들을 돌아보았다.

나는 물리학강의를 받고있던 학생들과 함께 미래의 조선의 물리학자들이 되려는 그들의 꿈과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평범하고 유쾌하고 아름다우며 때로는 장난기도 있는 학생들이 바로 이 나라의 미래들이었다.

교실밖에는 풍구장들과 정구장들이 꾸려져있었다.

조선에서의 학교교육은 무료이며 의무화되어있다.

5월 20일 아침 우리는 당창건기념탑을 돌아보았다.

당창건기념탑은 김일성주석의 령도밑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로부터 민족적독립을 이룩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형상하고있다.

내가 조선로동당마크의 생김새에 대해 의아해하자 안내원은 다음과 같이 해설해주었다.

《다른 공산주의당들의 마크에는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치고 낫을 그리고있지만 조선로동당마크의 중심에는 붓이 있다. 이것은 조선에서 과학자들이 차지하고있는 지위를 상징한다. 이것은 조선이 발전된 사회주의제도를 건설하는 투쟁에서 거대한 성과를 이룩할수 있는 요인에 대해 잘 말해주고있다.》

김일성주석의 과학중시정책은 조선의 발전을 추동하였으며 오늘날 사회주의적 경제 및 사회발전의 성공적인 사례로 되고있다.

조선의 이러한 발전은 나날이 악화되고있는 미국과 서방의 자본주의경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되고있으며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여 자본주의 국가들이 조선을 봉쇄시키는데 병적으로 매여달리고있는 것이다.

조선이 독자적인 정치경제발전의 길과 생활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하여 유엔은 의도적인 경제제재로 이 나라를 정치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있다.

이것은 도이칠란드 나치스가 와르샤와에서 유대인들을 고립

시키던것과 다를바가 없다.

조선은 여전히 유라시아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지배전략 실현에서 장애물로 되고있다.

지리적으로 조선은 로씨야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아시아대륙의 관문으로 되고있다.

이날 우리는 과학기술전당도 참관하였다.

이 전당은 우주과학으로부터 시작하여 깨끗한 에너지기술에 이르기까지 조선에서 이룩된 눈부신 과학성과들을 보여주는 전시관이다.

나는 여기서 시력장애자들을 포함한 각이한 장애자들을 위한 과학기구들과 아이들을 과학의 세계에 소개해주는 요술방울, 생물공학, 해양 및 우주기술, 과학기술공식들과 농업의 추세 등을 보여주는 수많은 전람실들을 돌아보았다.

한때 고등수학에 상당한 취미를 가지고있던 나는 과학기술전당에서 나를 안내해준 녀성물리학자와 인상깊은 수학수수께끼풀이도 해보았다.

내가 조선말로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을 배워 지나가는 어린이들에게 건네니 아이들은 레절있고 정중하게 머리를 인사하는것이였다.

나도 그들에게 마주 인사를 하였다.

나는 임의의 장소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국공민이라고 밝히면서 자유롭게 말을 걸었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민중과 언어의 장벽, 편견들은 사라지고 인간들사이에 오가는 친밀성이 그 인위적인 장애물들을 대신하였다.

이 변혁적인 나날들을 보내며 나는 과거에 대해서와 지금까지 주입받아온 모든 내용들을 깨끗이 잊게 되었으며 조선의 풍부하고 인도주의적인 문화에 동화되었다.

이날 나는 미래과학자거리를 참관하였다.

이 거리는 과학자들과 그 가족들이 살고있는 주민구역이며 여기서 주민들은 의료설비들을 비롯한 모든 시설들을 완전히 무료로 리용하고있었다.

과학자들은 가족을 먹여살릴 걱정없이 과학연구사업에 집중할수 있었으며 이것이 바로 북조선의 급속한 과학기술발전의 또 하나의 비결이였다.

그날 고향산속으로 돌아오고 있던 길에 나는 농민들이 살고있는 시골마을을 지나며 잊을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6~7살가량 나보이는 어린 소녀가 춤을 추고있었다. 아마도 농장일나갔던 부모들을 기다리며 그들에게 보여줄

춤동작을 리습하고있던 모양이다. 그때 차를 멈추고 아롱다롱한 치마를 입고 즐거움에 넘쳐 황금빛이 물든 저녁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춤을 추고있던 그 귀여운 소녀애를 촬영기에 담지 못한것이 아쉬울뿐이다.

2

인권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퇴색되어 대량살륙무기라는 의미를 띠게 된것은 바로 유엔에서부터이다.

철학박사인 스티브 하아링크는 다음과 같이 썼다.

《유엔의 인권옹호운동이란 목표를 정하고 날아가 폭발을 일으켜 주위의 모든것을 파괴해버리는 폭탄과도 같이 사용되고있다. 물론 정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폭발이라는것은 정확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수도, 혹은 예상치 못하였던 곳에 무차별적인 타격을 가할수도 있는것이이다. 이러한 인권옹호운동은 북조선인권옹호 비정부단체들을 미국정부의 지원을 받는 정보전쟁을 위한 기구들로 전락시켰다.》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정부는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있는가?

핵무기현대화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있는 반면에 가난구제에는 거의나 주의를 돌리지 않고있다.

그러나 조선 사람들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고있다.

그리고 그 말을 리증해주는 강력한 증거물들을 나는 곰뿔어관을 비롯하여 아이들의 건강증진과 교육, 과외활동을 위하여 꾸려진 시설들에서 직접 목격하였다.

글의 간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나는 직접 목격한 사실들중에서 많은 부분을 생략해야 하겠지만 1950~1953년기간에 북조선에 침략하였던 미국과 남조선추종세력의 악몽을 그대로 축소화한 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였던 소감을 적지 않고서는 이 글을 끝맺을수가 없다.

간단한 기록편집물을 통하여 트루먼대통령과 맥아더, 덜레스가 6월 25일(일요일) 불의의 공격을 개시할것을 면밀히 그리고 광란적으로 계획하며 저들의 총명함을 뽐내고있는 모습들을 볼수 있었다.

편집물은 앞날을 빼앗긴 조선 어린이들의 공포에 찬 얼굴을 보여주는것으로 끝났다.

나는 불현듯 정전협정은 체결되고 다른 장군들이 맥아더의 자리에 올라앉았지만 제국주의의 악몽은 월남과 캄보자, 라오스와 같은 나라들에서 차례로 반복되었다는 사실에 눈

물이 났다.

사람들이 무리로 죽어나가고 국가들은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착취당하였으며 그로 인해 산생된 엄청난 전쟁리익금은 은행구좌로 흘러들어 1% 상층계급의 주머니를 불리워주었다.

미국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브라질의 굴라르트정부를 무너뜨리고 저들의 앞잡이인 군사정권을 세웠으며 민주주의적으로 선거된 칠레의 사회주의정부를 뒤집어엎고 저들이 뒤받침하는 력사상 가장 포악한 독재정권을 세워놓았다.

나는 브라질과 칠레에서 바로 그 무시무시한 독재정권시기에 기자로 활동하였으며 그때를 잊을수가 없다.

바로 북조선의 전쟁승리기념관에서 나는 그때를 상기하게 되었다.

제국주의는 계속 확산되고 변화되며 각이한 조건에 맞게 적용되어가는 암과도 같은 존재이다.

이 암종은 오늘날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까지 전이되었다.

미국과 영국의 《협력》하에 《모든 필요한 수단》들을 동원하여 이라크를 침공할수 있도록 만든 유엔안보리결의 678호에 대하여 유엔은 언제 한번 사과를 한적이 없다.

또한 미국과 나토가 《모든 필요한 수단》들을 동원하여 리비아정부를 완전히 파괴하고 이 나라를 테로의 온상으로 만들어놓도록 권한을 부여해준 유엔안보리결의 1973호에 대해서도 유엔은 리비아에 사과한적이 없다.

유엔안보리사회의 살륙적인 행동을 목격하며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란 오직 조선의 김정은령도자께서도 《모든 필요한 수단》들을 동원하여 무한히 용감하고 아름다운 조선의 인민들과 그들이 선택한 생활방식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는것밖에는 없다.

유엔의 제재속에서도 조선의 령도자께서는 인민들을 위해 지극히 헌신하고계신다.

그분께서는 교사들과 장애자들의 생활상애를 풀어주시고 인민들에게 최고수준의 교육을 보장해주고계시며 녀성들을 위한 신발공장들을 일떠세워주고계신다.

이것은 핵무기생산과는 전혀 무관하다.

미국의 주도하에 유엔은 조선에 대한 경제제재를 감행함으로써 조선사람들의 생활을 참을수 없는 지경까지 몰아가고있다.

력사는 오늘날 미국의 조종하에 유엔이 조선에 가하고있는 만행을 21세기의 가장 큰 범죄로 락인할것이다.



↑ 옥류 아동병원에서 치료받는 어린이
← 과학기술전당에서 학습하는 근로자들

《대화》 타령과 상반되는 도발망동

최근 남조선당국이 북남대화를 들고나오면서 한편으로는 《북도발위협》과 그 무슨 《자주국방》을 떠들어대며 군사적대결을 고취하는 높음에 매달리고있다.

지난 6월 23일 남조선당국은 《현무-2C》 탄도미사일시험발사놀음을 벌여놓고 동족을 자극하는 발언들을 늘어놓았으며 《정부》와 언론들은 이것을 《북의 련이은 도발에 대한 경고메세지》라고 여론화하는 등 대결분위기를 고취하였다.

남조선의 《국무총리》와 외교부 장관도 련이어 전연지대의 군부대들과 《한》미련합사단 등을 찾아다니며 《북의 실존적위협에 대한 대응》,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을 떠들어대며 특히 국방부 장관후보자는 《북이 도발하면 전쟁상처처럼 작전을 끝내야 한다.》, 《유사시 전선을

북상시켜 북지역에서 싸우도록 하겠다.》는 대결망발을 쳤었다.

한편 남조선의 군부호전자들은 남해수역에 카나다함선 2척을 끌어들이러 연합해상기동훈련을 벌였으며 뒤이어 전선동부지역에서 대병력을 동원하여 《2017년 통일훈련》이라는것을 감행하는 등 전쟁연습광기를 부리고있다.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군사적대결망동은 북남사이의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한 공화국의 호소에 정면도전하는 행위이며 미국의 침략전쟁책동에 편승하는 반민족적범죄이다.

남조선에서 친미보수패당이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난 이후 북남관계개선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민심의 기대와 관심은 급격히 높아가고있다.

남조선당국도 민심의 이

러한 흐름을 인식하고 이 전시기부터 《대화》와 북남관계개선을 운운하였으며 《대통령》선거후에는 임기내에 조선반도평화의 《획기적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떠들었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의 행동은 그렇지 못하다. 남조선당국은 집권초기부터 동족의 핵무력강화조치를 계속 걸고들며 미국의 날강도적인 침략전쟁도발책동과 반공화국압살책동에 적극 가담하는가 하면 《안보》를 떠들며 북침을 위한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소동에 매달리고있다.

이것은 그들이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대화를 할 생각이 없으며 역대 독재 《정권》처럼 《대화있는 대결》을 추구하고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지나온 북남관계력사가 보여주듯이 동족대결로 초래될것은 전쟁밖에 없다.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

도의 평화를 바라는 민족의 요구를 외면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과의 군사적대결을 추구는것은 민족의 근본리익을 외면하고 이 땅에 전쟁을 몰아오는 쓸개빠진 망동이다.

미국에 군사주권마저 빼앗긴 남조선당국이 감히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켓맹주국으로 위용떨치고있는 공화국에 대한 그 무슨 《군사적대응》을 떠들어대는것 자체가 가소로운 추태이며 멸망을 자초하는 부질없는 객기에 불과하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대화를 원하고 평화를 바란다면 민족의 주적생각이 없으며 역대 독재 《정권》처럼 《대화있는 대결》을 추구하고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김정혁

제재와 관계개선은 양립될수 없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반공화국대결소동에 계속 매여달리고 있다.

최근에만도 미국은 핵전략폭격기 《B-1B》 2대를 남조선상공에 끌어들여 공화국을 겨냥한 모의 폭격훈련을 감행하였으며 앞으로 월 1차이상 전략폭격기들을 조선반도에 출동시키겠다고 로골적으로 떠들어대었다.

한편 암비어의 사망과 관련하여 공화국의 인도주의적조치를 《비인도주의적인 처사》로 매도하면서 반공화국비난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현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반공화국대결책동에 적극 추종해나서고있는 것이다.

미국이 유엔을 동용하여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강화조치를 결코 부당한 《제재결의》 2356호를 조작하자 남조선당국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한 것으로 평가한다.》느니,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제재와 압박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북미 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다.》느니 뉘니 하면서 제재합창에 열을 올리었다.

얼마전 새 《정부》에 들어왔을 주요장관후보자들이 《국회》청문회를 통과하겠다고 저저마다 나서서 동족대결망발들을 서슴없이 쫓아댄 사실 하나만으로도 현 당국의 대미굴종추태를 그대로 엿볼수 있다.

남조선당국은 지난 6월 25일에도 서울에서 《제67주년 6.25전쟁기념식》이라는것을 벌여놓고 《한미동맹》, 《북핵문제》, 《북인권》에 대해 떠들면서 《안보》분위기를 고취해나섰다. 현 집권자도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 《강하고 튼튼한 《안보》와 국방력이 있을 때 대화와 평화도 가능한것 만큼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문제해결을 위해 트럼프와 머리를 맞댈것》이라고 력선했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남조선국방부는 6월 24일과 25일 1박 2일동안 남조선

강원도지역에서 륙군 1야전군소속 2군단, 3군단, 8군단의 장갑부대들을 동원하여 야외기동 및 실탄사격훈련인 《통일훈련》을 벌여놓았다. 제반 사실들은 남조선당국이 민간단체의 《접속승인》이요 뉘요 하면서 마치고 《대화》에 관심이 있는듯이 놀아대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무조건적으로 편승하면서 지난날 보수패당의 대결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제재와 관계개선은 결코 양립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에 추종하면서 동족대결에 계속 매여달리는 한 북남관계는 절대로 개선될수 없다.

그 어떤 외세도 우리 민족이 통일되어 강성하고 번영하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는것은 민족분렬의 70여년이 남긴 교훈이다.

북남관계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대결책동에 철저히 짓부셔버릴 때에만 민족의 리익에 맞게 개선될수 있으며 온 겨레의 념원인 통일도 하루빨리 성취될수 있다.

강경수

초불민심이 요구하는 전교조합법화

남조선에서 새 《정권》이 들어선 후 강제추속에서 리명박근혜 《정권》이 도처에 쌓아놓은 적폐들을 청산할데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그런 속에서 최근에는 박근혜패당이 의하여 강제로 비법화되었던 진보적인 교원단체인 전교조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지위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총력기해나섰다.

남조선의 초, 중, 고등학교 교직원들이 1989년에 《민족, 민주, 참교육 실현》을 강령으로 내세우고 조직한 단체인 전교조는 당국의 반인민적이며 반통일적인 교육정책을 반대하고 남조선청소년학생들속에 반미자주, 립북통일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활동을 즐기차게 벌려



왔다. 이것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온 리명박, 박근혜보수 《정권》은 전교조의 활동을 악랄하게 탄압하였으며 지어 박근혜는 2014년 6월 《법원》을 내세워 전교조를 《불법조단체》로 판결하고 합법적지위를 박탈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남조선에서 동족대결을 반대하고 정의와 민주주의, 참다운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해온 전교조

의 비법화는 《유신》 파쇼독재를 부활시키려고 발악해온 박근혜패당이 감행한 극악한 반민족적, 반민주적범죄로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

정의와 민주주의, 통일을 바라는 민심의 한결같은 열망과 투쟁에 의해 박근혜가 탄핵되고 《정권》도 바뀌었다. 민심의 이러한 지향을 따르다고 하는 현 남조선당국자도 전교조합법화를 《대선》공약

으로 내들었다.

지금에 와서 전교조의 합법화문제는 민심의 지향과 요구대로 적폐를 청산하느냐 아니면 민심에 역행하여 적폐를 비호하느냐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되고있다.

박근혜가 파면당하고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하여 전교조의 합법화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적폐청산을 전면에 내들고 박근혜를 심판한 초불투쟁의 기세로 전교조의 합법화투쟁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김영춘

랄리 될수 없는 운명

최근 남조선에서 극우보수단체들의 운명이 칼도마우에 올랐다.

친미보수 《정권》때 때마다 수백만 US\$에 달하는 자금을 받아먹으며 보수 《정권》 옹호에 앞장섰던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마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3개의 대표적 극우단체들이 박근혜패당과 함께 적폐청산대상이 되어 조사반을 처지에 놓여있다고 한다.

특히 회원수가 350만명에 달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은 《정부》 지원금이 언젠 삭감될지 모르는 메다 회원들이 련일 사퇴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단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였으며 박근혜탄핵반대집회를 주도했던 《박사모》와 《박근혜탄핵무효 국민저항총력기 운동본부》, 《엄마부대》 구성원들도 박근혜역도의 수족이후 내부가 사분오열되어 개싸움만 벌이고있다.

여기에 극우보수단체들의 두목들이 명예훼손, 내란선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것으로 하여 그야말로 아버지규한다.

박근혜의 치마폭에 매달려 맹목적으로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을 추종해온 추물들에게 차레진 응당한 령사의 심판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박근혜가 심각한 통치위기를 모면하려고 《보수단체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나서야 한다.》, 《좌파단체의 친북, 반정부행동에 맞서는 전투에 대비하라.》고 고아대면서 보수단체들에 《총동원령》을 내렸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것을 위해 박근혜는 대기업들로부터 수백만US\$를 뜯어내어 극우보수단체들에 퍼주면서 그들을 친 《정부》 집회에 내몰고 《관계메모》를 지시했다.

한편 보수단체들은 청와대가 던져주는 돈을 서로 더 많이 따먹겠다고 개싸움을 벌리면서 경쟁적으로 미국의 성조기까지 들고나와 초불민심을 모독하며 란동을 부려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었다.

지금 박근혜-최순실 사건과 관련한 재판과정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박사모》, 《조갑제닷컴》을 비롯한 극우보수단체들이 청와대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아먹고 박근혜탄핵반대와 민주개혁세력에 대한 비렬한 흑색공세를 감행해온 사실들이 련속 드러나고있다.

한중도 못되는 이런 돈벌레들, 치매든 늙다리강패들, 대결광신자들이 바로 보수패당이 그처럼 의지하던 《공크리트지지세력》이었다니 이보다 더 세상 웃기는 일이 또 어데있겠는가.

인간의 랑심과 체면을 쉼버리고 권력과 먹이감을 쫓던 보수물벌레들이 박근혜패당과 함께 밥통이 멀어져 바뀌새끼들처럼 흩어져버리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민심의 버림을 받은 극우보수단체들과 그 떨거지들을 하루라도 빨리 오물더미에 내다버리는것이 상책이다.

본사기자 김련옥

선임자의 전철을 밟으려는가

지금 남조선에서는 현당국자의 미국행각이 사람들의 눈초리를 자극시키고있다.

권력의 자리에 올라오면 미상전부터 찾아가 확고한 믿음을 받아오는것이 남조선보수집권자들의 관례적인 추태이고 보면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 그런데 현 남조선당국이 보수집권세력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있으니 여론의 조소를 더욱 자아내는것이다.

현실적으로 현 당국자의 첫 미국방문을 두고 지금 청와대에서는 큰 자랑거리라도 되는듯이 소란을 퍼우기에 여념이 없다.

미국 행각전 현 당국자가 외신기자들앞에 나서서 《확고한 동맹》이니, 《북의 위협》이니 하

고 력설하는가 하면 조선전쟁에서 살아남은 산송장들을 위한 그 무슨 《위로》이니라는데까지 머리를 들이밀면서 미상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극성을 부리었다.

한편 미국땅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장진호반전 투기년비》라는데 찾아가 전장에 참가하였던 침략자들에게 허리굽혀 《인사》하며 비굴하게 놀고 미국대통령과 만나 《북핵문제해결》, 《동맹강화》를 떠들어대었다.

이것은 저들의 명줄을 틀어쥐고있는 미상전의 환심을 사보려는 하수인들의 주절스럽고 가군한 행위로 밖에 달리볼수 없다.

민족에게 반세기이상이나 분렬의 고통을 강요하고도 모자라 오늘날에는 핵전쟁의 참화까지 몰아

오려는 미국을 신주모시듯하는 남조선의 친미사대분자들은 제 정신을 잃어버린 얼간망둥이들이다.

남조선정치사에 새로운 한페이지를 새긴 반박근혜투쟁은 부정의에 대한 정의의 징벌인 동시에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는자들에 대한 민족의 응당한 심판이었다.

자주에 이항되는 민족의 흐름에 몸을 잠그지 못하고 제 민족보다 침략적인 외세에게 추종하는자들이 가닿는 종착점은 멸망의 나락이라는것은 흘러온 력사가 보여준 진리이다.

현 당국자가 이 진리를 망각하고 미국에 아부하고 동족을 적대시하다가가는 박근혜와 같은 운명만이 차례질뿐이다.

본사기자 서명수

보수학계의 쇠퇴물락은 력사의 필연

최근 남조선에서는 친미보수 《정권》의 파멸과 함께 보수정치를 리론적으로 뒤받침하고 《학문》의 허울메에 각 분야에 친미굴종주의와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해온 보수계열의 연구소들과 학술잡지들이 조락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시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을 설교하는데 앞장섰던 보수잡지인 《시대정신》이 무기한 폐업상태에 들어갔는가 하면 재벌위주의 경제리론과 력사교과서 《국정화》를 비롯하여 보수패당의 반역정책들을 옹호해온 연구소인 《자유경제원》이 해체위기에 빠져들것이지 그 대표적인사례이다.

이들 두고 지금 보수계열의 연구소들과 학자나 부랑이들속에서는 《무능, 부패, 무책임》 드러나 보수진영은 거의 괴멸됐다.》, 《박근혜(정권) 몰락과 함께 가득

경영난까지 겪게 된것과 관련된다》고 한다.

지난 보수 《정권》때 보수계열의 연구소들과 출판사들은 대기업들로부터 막대한 재정적지원을 받아왔지만 박근혜탄핵이후 《전경련》이 해체위기에 몰리면서 돈줄이 끊기게 되었다.

보수학계의 조락은 여기에 종사하는 어중이떠중이들이 자기의 변변한 철학도, 학술적주장도 없이 보수패당이 던져주는 몇푼의 돈을 받아먹으며 보수 《정권》에 맹목적으로 추종해온 결과라고 할수 있다.

이것은 시대와 력사의 흐름에 역행하여 추악한 권력의 시니노릇을 일삼아온 보수매문가집단, 사아비학자들의 피할수 없는 운명이다.

지난 시기 보수학계는 신성한 《학문》을 동용하여 파쇼독재통치를 뒤받침

추악한 돈벌레들의 서식장이며 사회발전의 걸림돌인 보수학계를 박근혜역도와 함께 단호히 매장해버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가소로운것은 보수학계의 매문가들이 괴멸된 보수세력을 폐허에서 되살리려고 《해법》이니, 《재건》이니 뉘니 하며 버드럭거리고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족을 등지고 몇푼의 돈에 학자로서의 랑심도, 초보적인 도덕도 다 팔아버린 채 권력에 아부해온 보수매문집단에 더이상 눈길을 돌리는 사람은 없으며 들떠난 랑대만이 더 질어갈뿐이다.

민족자주의식을 거세하는 암적존재이며 권력에 기생하는 추물집단인 보수학계의 쇠퇴물락은 력사의 필연이라는것을 보수매문가들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리어금

최근 미국이 《최대의 압박》 조처에 따른 고강도경제제재와 병행하여 침략적인 핵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연속 투입되며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압박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있다.

미국은 핵동력항공모함 《니미즈》 호타격단을 미7함대의 작전수역인 서태평양해역에 투입하여 이미 전개되어있는 핵동력항공모함 《로널드 레간》 호타격단과 함께 조선반도유사시에 대비한 해상작전을 수행하게 하려고 하고있다. 지난 6월 20일에도 미국은 판도에 있는 핵전략폭격기 《B-1B》 2대를 남조선 상공에 끌어들이며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가상한 핵폭탄투하훈련을 벌린데 이어 앞으로 전략폭격기들을 월 1차이상 조선반도지역에 출동시키는 것을 정례화하겠다고 광고해내고있다.

얼마전에는 유사시 평양의 주요시설들을 정밀 타격할수 있는 장거리공중대지상미사일 《재즈》

경거망동이 초래할 후과

을 군산미공군기지에 전격 배치하였는가 하면 남조선감정 미2사단장을 내세워 《〈한〉 미련함훈련의 확대》를 떠들어대면서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강도를 높이고있다. 이것은 가족이나 긴장한 조선반도정세를 핵전쟁접경으로 몰아가는 위협천만한 군사적망동으로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온 겨레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핵전쟁장비들의 출동에 대해 비밀에 붙이고 언급을 극력 피해오던 미국이 이번에는 그것을 언론에 빼앗아 공개까지 해대면서 조선반도에 계속 투입하려 하고있는것이다.

모든 사실들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에서 군사적선택안은 배제되었다는 미국의 광고가 핵선제타격을 포함한 북침전쟁도발흥계를 가리우기 위한 기만술책이라

있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공화국의 정당한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를 걸고들며 감행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책동과 군사적광란으로 하여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다.

그것은 앞에서는 《대화》를 부르짖으면서 그막뒤에서 핵전략자산들을 계속 끌어들이며 북침핵전쟁연습에 광분하는 미국의 책동때문이다.

미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잡고있는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침략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지배적지위를 차지하려는 저들의 침략적 야망을 오늘날 기어이 실현해보려 하고있다.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공화국의 무장해제와 제도전복을 이루어보려고 미국은 공화국에 대한 압살과 적대행위를 각 방면에서 발악적으로 감행하고있다.

공화국을 먹여치우고 나아가서 세계를 지배하려는 미국이 있는 한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는 극도로 악화될수밖에 없고 핵전쟁발발은 시간문제이다.

그러나 미국이 아무리 발악해도 일은 그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것이다. 힘은 결코 미국에게만 있는것이 아니다. 공화국은 인구도 많지 않고 영토도 크지 않지만 그 어떤 강적도 때려부실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있다.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전쟁연습에 광분하는 미국의 로켓트맹주국으로 강화된 공화국은 미국의 그 어떤 형태의 침략전쟁에도 대응해줄 준비가 되어있다.

만약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집을 일으키려고 어리석게 놀아대다가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재앙을 저들의 본토에서 맛보게 될것이다.

미국은 무모한 군사적망동이 초래할 파국적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주광일

스스로 죽음을 청하는 광대들

최근 남조선에서는 세상사람들의 조소를 자아내는 광대극이 또다시 벌어졌다.

바로 6월 25일 을 계기로 남조선당국이 벌려놓은 그 무슨 《기념식》이라는것이다.

전쟁승리를 기념하는 나라나 민족은 있어도 폐전자들이 저들이 전쟁을 도발한 날을 기념하는것은 아마도 미국과 남조선밖에 없을것이다.

지금도 6월 25일은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불행과 고통의 대명사로 되고있으며 침략자들에게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더욱더 분출시켜주는 날로 되고있다.

그런데 이날에 자기 민족을 말살하려고 기여들었던 침략자들을 끌어들이 《기

념식》이니, 《위로연》이니 하는 광대놀음을 벌려놓은 남조선당국자들의 행위는 과연 무엇이라고 해야 하는가.

이것은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국의 침략적정체와 패배자의 추악한 몰골을 가리우기 위한 서푼짜리 광대놀음, 친미보수 《정권》 때와 다름없는 동족대결망동이다.

남조선당국이 서울북관에서 이러한 광대극을 펼쳐놓는데는 참패를 《승전》으로 둔갑시키고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여 기어이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불순한 기도가 비껴있다.

6월 25일을 계기로 남조선호전광들이 벌려놓은 야외전투훈련과 탄도로켓트시험발사놀음도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남강원도 전지역에서 수도하면서까지 전쟁책동에 동참하여 야외기동 및 실탄사격훈련인 《통일훈련》을 벌려놓고 《대응타격으로 즉시 《응징》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

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뿐만아니라 탄도로켓트 《현무-2C》 시험발사놀음을 벌려놓고 《북에 대한 말없는 압박》이니 《엄중경고》니 뭐니 하면서 풍수없이 떠들어댔다.

하지만 허세를 부려대는 남조선호전광들의 추태는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의 대포밥이 되어 제죽을줄 모르고 날뛰는 미련하고 가스로운 망동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호전광들이 하내비처럼 믿고있는 미국도 공화국의 강위력한 군력앞에서는 몽둥이뺨질을 당한 미친개처럼 허둥대고있다.

엄연한 현실을 바로보지 못하고 동족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과 미상전에 대한 맹목적인 굴종에 빠져 패배를 《승전》으로 오도하면서까지 전쟁책동에 미쳐날뛰는 남조선호전광들이야말로 스스로 죽음을 청하는 광대들이 아닐수 없다.

본사기자 황진옥

최근 미국이 완비어죽음과 관련하여 반공화국 비난전에 열을 올리고있는 가운데 재미동포 리인숙(녀자 60살)이 40여년간 의료부문에 종사해온 자기의 체험과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 사건을 과학적으로 파헤친 글 《죽을 놈 살려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의 완비어사망론난》을 재미동포인터네트신문 《민족통신》에 발표하여 각계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같은 다음과 같다. 2015년 12월 29일 북에 들어갔다가 17개월만인 지난 6월 13일에 혼수상태로 미국으로 데려온 완비어가 19일 사망했다는 소식에 온 미국과 《한국》이 들끓는다.

지난해 3월 조선 법정에서 《국가전복기도형》으로 15년 로동교화형을 받은 뒤 곧 혼수상태에 들어간 완비어를 조셉 윤 미국 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의료진들과 함께 미군 의료비행기를 타고 평양으로 날아가 완비어를 미국으로 데려온지 6일만에 사망했다.

완비어는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을 때 자신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었으며 신화통신 기자가 그에게 《북의 고문이나 압박이 있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그는 《너무나도 인도적으로 잘 대해 주어 놀랐다.》, 《북의 법 집행은 매우 공정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로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았는지 얼마 안되어 뇌에 문제가 생겨 1년이상을 혼수상태에 있었다.

혼수상태에서도 1년이 상 살아있게 했다는것은 조선이 그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병원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것이다.

만약 이곳으로 옮겨오지 않았더라면 그는 조선에서 더 살수도 있었을는지 모른다.

혼수상태에서도 1년이

상 버티오게 만든 조선과 미국에 온지 불과 6일만에 사망하게 만든 미국은 실로 엄청난 차이다.

최첨단 의료진이라는 미국이 왜 그렇게 빨리 죽도록 했을까?

우리 인간이 오는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것은 순서가 없다는 말대로 인간의 생명은 한치 앞을 알수 없다. 나는 몇십년간 병원에서 일해오면서 특히 중환자실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수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목격하고 경험하였다.

혼수상태라는 말은 뇌가 죽었다는 말이다.

심장의 박동이 인공호흡의 도움으로 편다 해도 뇌가 죽는 경우는 그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심장

동맥류로 죽었다. 알고보니 그 남편의 형제들이 다 같은 병명으로 20~30대에 다 하늘나라로 갔다 한다.

어떤 《한국》 할머니는 머느리와 대판 언성을 높이고 다투다가 그만 뇌혈관이 터져 거의 죽어가면서 인공호흡을 달고있는 모습도 보았다.

이렇게 나이와 관계없이 유전이나 선천적인 질병으로 뇌손상이 일어나는 병들은 무수히 많다.

그 《한국》 할머니처럼 뇌출혈이나 혈압의 영향으로 뇌가 터지는 경우 뇌암, 뇌경색증, 뇌부동맥류(뇌동맥이 비정상적으로 생김), 간질병으로 인한 뇌손상 등 뇌에 쇼크를 일으킬수 있는 원인들은 무수히 많다.

현재 북과 미국은 사상

류례없이 전쟁 일보직전

척행위를 해서 아직도 북에 억류중인 미국인 3명도 의식불명이여야 되지 않을까?

미국은 적대국가들에 대한 거침없해선전에 이끌이 나있지 않은가.

미국은 미련방준비은행장 알런 그린스펀이 말했듯이 이라크석유를 강도질하기 위해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있다고 거짓명분을 만들어 침략한 전범국가가 아닌가?

그렇게 중동에서만도 수백만명을 학살하고 파괴하고 6 000만명도 넘는 난민들을 만들고도 세계패권을 쥐고 세계를 주무르는 악귀들이 미국의 실력자들이다.

현재 북과 미국은 사상

《죽을 놈 살려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의 완비어사망론난》

을 멈추게 하는것이 캘리포니아의 법이다.

전에 30대 《한국》 남성이 변호사가 된지 얼마 안되어 앞으로 돈을 많이 벌것으로 생각해서 부자동네 로스안젤스근처에 집까지 사놓고 그만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져 인공호흡을 달고 병실에 들어왔다.

그의 뇌파검사결과 뇌사상태였기때문에 담당의사는 이제 그만 인공호흡을 빼자고 그 부인에게 말했다지만 그 젊은 부인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며 통사정하였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법에 따라 인공호흡을 제거하자 그 젊은 《한국》남성은 곧 시체로 변했다.

아이도 몇명이나 달린 상태에서 그 녀성이 살아갈 생각을 하니 몹시도 측은하게 생각했던 기억을 잊을수 없다.

또 몇십년전 남미계통의 녀자 카운셀러와 같은 직장에서 일을 했을 때 일어난 일인데 그 녀성이 결혼한지 불과 몇달 안되어 30살도 안된 남편이 뇌

완비어의 병명이 식중독이라는 말과 의료진의 《뇌가 엉망이다.》라는 말이 사이에서 괴리가 크다.

물론 식중독이 패혈증을 일으키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패혈되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뇌가 엉망이다.》라는 말에 무제가 더 실린다.

완비어가 입원한 신시내티주립대 병원의 신경과 전문의 대니얼 캔터박사는 완비어가 기자회견 당시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 즉 식물인간상태라고 말했다 한다. 또한 어떤 신체적학대나 물질의 고문혼적을 전혀 찾지 못했다고 말한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완비어가 자체에 문제가 내제되어있음을 말하지 않는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백남기농부의 사망원인을 가지고 장난놓았듯이 완비어사망원인을 가지고 미국이 조작할 확률이 무척 높다.

만일 북이 확대해서 완비어가 사망했다면, 완비어보다도 더 악질적인 간

의 위기속에서 치렬하게 대결하고있다.

핵전쟁으로 사라지지 않으려면 평화협정에서 최대한도로 유리한 카드를 가지고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람죽이는것을 파괴죽이듯이 하는 미국실력자들의 비밀요원에 의하여 완비어도 살해되지는 않았을까?

미국대통령도 암살해려고 9.11자작극도 멋지게 만드는데 하물며 의식 없는 사람정도야 누워 떡 먹기일것이다.

세계언론을 장악하고있으니 미국의 거짓에 세계가 장단을 맞춰 짓을것은 당연하다.

완비어가 입원한 병원의 신경과 전문의 대니얼 캔터박사는 기자회견에서 《완비어의 신경상태를 가장 적합하게 기술하는 용어는 깨어있지만 반응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완비어는 호르몬조장치 없이 술을 쉬며 심장을 비롯한 장기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있다.

캔터박사는 《뇌의 모

든 부분에서 광범위한 뇌조직손상이 발견됐다.》며 《이런 종류의 부상은 일반적으로 심폐기능이 정지하면서 뇌조직이 죽을 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뇌로 혈류와 산소공급이 차단되면서 나타나는 뇌조직손상과 같다는것이다.

완비어같은 건강한 젊은이들에게 심폐정지는 마약중독, 외상성손상같은 드문 경우에만 나타난다고 캔터박사는 설명했다.

그러나 완비어의 경우는 신체적학대나 물질상을 입었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두개골과 목뼈도 정상으로 나타났다. 오하이오주 린컨공항에

그리고 그가 코에 끼고있는 호스는 위에까지 가지는 호스이며 그 호스를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있다.

완비어를 살리려고 노력한 조선의 땅과 수교에 대해 적반하장으로 마치 북이 살인을 했듯이 사기를 치는것은 배운망덕한 짓거리라 아니할수 없다.

그레그 전 대사는 《북의 석방결정은 만일의 경우 완비어가 가족과 함께 죽음을 맞이할수 있게 배려한것》이라면서 이는 작지만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완비어사망후 트럼프의 미소가 악마의 얼굴로 변한것은 완비어가 그렇게 빨리 이곳에 와서 죽으

의식상대인 완비어를 데려왔다고 기쁘다고 했겠는가? 자기 국민들을 대단히 위하는것처럼 보이면서도 북을 더욱더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써먹기 위함일가?

미국이 하수인 유엔은 미국의 습관적인 구라와 고문가혹행위를 조선에 뒤집어씌우고있다.

미국은 세계에 수십개의 비밀감옥을 만들어놓고 온갖 말할수 없는 고문, 구타, 강간처형을 자행하고있고 《한국》은 인혁당사건처럼 량심과 정의와 민족의 평화를 웨치는 사람들을 잡아다 창자가 튀어나오도록 고문한것도 모자라 판결 하루도 안되어 8명을 전부 다 가족도 모르게 죽여버리지 않았는가?

오죽하면 국제법에서도 이날을 《암흑의 날》이라고 했겠는가?

이들의 만행은 지금도 계속되고있다.

미국은 아직도 세계 비밀감옥소에서 그 악행을 지속하고있으며 《한국》은 빨갱이라며 의인을 잡아가는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존재하고 감옥소에는 량심수들이 엄청 많다.

《한국》은 누가 미국의 노예가 아니랄가봐 상전의 헛소리에 맞장구를 쳤다.

문재인은 《북이 인류의 보편적규범과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것은 대단히 개탄스럽다.》, 《북인권무시 개탄》, 《북이 오토 완비어의 죽음에 증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맞장구를 치며 유족에게 조전을 보내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일가?

인민은 하늘이다.

80%의 국민을 믿고 당당히 처신해야 할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좀비들이 조금이라도 량심이 있다면 그리고 완비어를 편안하게 눈감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의 죽음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야 한다.

이 글은 본사 기자 주광일, 황진옥, 그리고 본사 편집부 기자들이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동맹》의 너울을 쓴 강도

최근 남조선 각계층인 민들속에서 《싸드》배치를 강박하고있는 미국의 책동을 반대규탄하는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지난 6월 24일 서울에서는 《싸드배치저지 전국 행동》의 주최일에 《싸드》배치를 반대하는 남조선각계층의 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졌다.

민주로총, 청년민중의 꿈, 참여연대를 비롯한 투쟁단체들은 서울광장에서 《싸드철폐국민평화행동》을 개최하고 시위행진을 벌인데 이어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관을 에워싸고 《포위집회》를 단행하였다.

투쟁참가자들은 《초불을 들어 미국을 쓸어버리겠다》고 격한 발언들을 쏟아냈는가 하면 《싸드》와 돈뭉치를 입에 문 미국대통령을 형상한 현수막을 찢는 의식도 벌어졌다.

이러 《미국이 로폴적으로 싸드배치를 강요하고있다》, 《싸드배치 강요하는 주권침해를 당장 중단하라》, 《이것이 동맹이나, 싸드 들고 나가라》, 《중속적인 《한미동맹》은 폐기되어야 한다》 등의 구

호를 웨치며 기세를 올렸다.

지금까지 남조선에서 반미투쟁이 수없이 일어났지만 이번처럼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관까지 에워싸 《포위집회》는 처음이라고 한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이야 죽든 살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저들의 리익만 추구하면 그만이라는 미국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중요와 분노의 폭발이다.

미국이 《싸드》를 남조선에 배치한것은 그 무슨 남조선의 《안보》를 위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을 방패막이로, 희생물로 삼아 저들의 동북아시아 지배전략을 실현하기 위한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이미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고 평한 《싸드》 때문에 피해를 보는것은 오직 남조선뿐이다.

《싸드》레이다에 의한 인체의 피해같은것은 제쳐놓고서라도 주변국들의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저들의 외교관계는 물론 경제적인 피해

까지 고스란히 당해야 하는것이 바로 남조선의 처지이다.

어디 이뿐인가. 남조선인민들은 몸에 차고있는 시한탄이나 다름없는 《싸드》때문에 어느 순간에 국적불명의 핵탄세례를 당할지 모르고 불안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어있다. 이런 《싸드》를 남조선인민들이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

미국만을 위한것이 남조선에는 백해무익한 《싸드》를 불법반입하고 그것도 남조선에 대한 것이기때문에 배치비용이 10억US\$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미국이야말로 뻔뻔스러운 강도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국은 입만 터지면 《한미동맹》을 꺼내들며 마치도 저들이 남조선의 《안보》를 지켜주는것처럼 너스레를 피우고있다.

그런가 하면 남조선의 친미보수 패거리들도 남조선의 요구를 위

해 간도 쓸개도 송두리채 썩어버리면서 역적행위를 서슴지 않고있다.

미국에 있어서 남조선은 전조선반도를 타고갔고 동북아시아지역의 군사적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군사기지로서, 더 많은 군사장비들을 팔아먹을 시장으로서만 필요할뿐이다. 《동맹》이라는 허울좋은 간판을 내걸고 저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온 남조선땅을 핵무기전시장, 핵전쟁터로 만들려고하는것이 미국의 본심이다.

현실은 남조선인민들의 생명과 안전, 민족의 리익을 위해서도 남조선에서 《싸드》와 함께 《동맹》의 탈을 쓴 남조선강점 미군을 당장 몰아낼것을 요구하고있다.

본사기자 김 영 진



《대화있는 대결》을 하자 는 것인가

현 남조선당국은 지금 북남관계에서 민간단체들 사이의 협력교류활성화에 대해 떠들고있다. 그들은 남조선민간단체들이 제출한 북남단체들과의 접촉신청을 몇건 승인하고는 그에 대한 《호응》이니 뭐니 하면서 마치 저들이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는듯이 여론을 오도하고있다.

하다면 지금과 같이 북남관계가 최악의 과국상태에 처한 시기에 민간단체들사이의 교류나 진행되는것으로 북남관계가 개선될수 있겠는가.

현재도 남조선에서는 지난 보수 《정권》시기에 만들어진 대결조치들이 그대로 유지되고있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

무대들에서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반공화국대결책동에 편승하는 망동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또 미국이 떠드는 공화국에 대한 《최대의 압박》정책이 남조선에 그대로 통하고있고 남조선당국도 이에 적극 추종하고있는 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따른 북남관계는 기대하기 어렵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결국 공화국을 겨냥한 이러한 《국제제재의 틀》속에서 벌어지는 민권협력과 교류는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에 아무런 도움도 안되며 오히려 백해무익하다고 보는것이 옳을것이다. 그런데도 《호응》이니 뭐니 하는것은 여론에 대한 우롱

일뿐이다. 하다면 《유신》독재광처럼 《대화있는 대결》을 하자 는 것인가.

적대세력들이 떠드는 《제재와 압박》은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묵인하고 진행되는 협력과 교류는 결국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의 흥행에 악용될수밖에 없다. 지난 시기 《협력과 교류》의 간판밑에 들락날락하며 공화국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려고 못된것을 하다가 공화국법의 심판을 받은 적대분자들의 실례가 그것을 증명해주고있다. 결론은 명백하다. 적대와 대결의 근원을 송두리

채 제거하지 않는 한 북남관계는 과거와 같은 합의 파기와 단절의 악순환을 피할수 없다.

박근혜의 탄핵을 요구하여 손에손에 초불을 들고 떨쳐나섰던 수많은 남조선인민들이 바라는것은 본적인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이며 보수패당의 동족대결정책의 폐기이다.

초불민심의 힘으로 집권했다고 하는 현 남조선당국이 민심의 요구를 실현하여 북남관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자면 외세의 눈치를 볼것이 아니라 자주적립장에서 민족의 리익을 우선시하고 민족의 요구를 따르는 길에 나서야 한다.

최진욱

최근 현 남조선 《정권》의 첫 외교부 장관이 된 강경화가 공화국을 걸고드는 망발들을 련이 늘어놓으면서 친미분자로서의 본색을 드러내 놓아 만사람의 지탄을 받고있다.

이자는 장관후보자로 내정되자마자 《북핵문제를 최우선과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쉼쳐냈으며 보수야당들이 그의 부정부패의혹을 걸고 자선사회를 강박하자 《안보관》을 인정받아보려고 《북의 추가도발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느니, 《금강산관광중단, 개성공단폐쇄는 모두 북의 전례없는 도발행위의 결과이다》느니, 《북의 핵미사일능력과도 화차단을 위해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하겠다》느니

뭐니 하면서 공화국을 더 무니없이 걸고들었다. 더욱 목과할수 없는것은 장관으로 임명된 후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과 남조선주재 미국대리대사, 미외교협회 회장 등을 련이 만나 《북핵대응의 모든 과정에서 《한》미공조를 최우선시하겠다》느

입건사를 바로 하여야 한다

니, 《《한》미공동의 위협은 급속도로 고도화되는 북의 핵미사일위협》이라느니 하며 상전의 비위를 맞춰돌아가는데 여념이 없다 못해 유엔 《북인권결의안》찬성기조유지를 주장하면서 《북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느니, 《인권불모지가 폭정을 낳고있다》느니 하며 혀바닥을 함부로

돌려대면서다. 명백한것은 강경화의 이러한 악당질이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개선되어 평화와 안정이 깃들기를 바라는 남조선초불민심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는 것이다. 강경화의 추태는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

까지 반기문과 같은 골수친미사대분자를 숭상해온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런 일간망동이 같은 년을 견마잡이로 앞세운 남조선당국자의 미국행각이 어떤 추한 꼴로 비쳐지겠는가 하는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강경화를 비롯한 남조선당국자들은 저들의 불순한 언동을 하나하나가 앞으로 어떤 화를 불러오게 되겠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입건사를 바로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남조선의 초불민심이 예리한 눈초리로 항상 주시하고있다는것을 남조선당국자들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김 명 성

《유엔군사령부》는 해체되어야 한다

미국이 남조선에 《유엔군사령부》를 끌어들이는 때로부터 60년이 되었다.

1957년 7월 1일 미국은 남조선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더 바싹 틀어쥐고 대조선침략정책실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일본 도쿄에 있던 《유엔군사령부》를 서울로 끌어들이었다.

《유엔군사령부》는 원래 유엔성원국들의 총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이 유엔의 이름만 도용해온 부당한 기구이다.

유엔헌장 제 27조에 의하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주요결정들은 《5개 상임리사국전체의 지지를 포함함》 7개 리사국(당시)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채택될수 있다.

미국은 1950년 6월 25일 리승만 역도를 사측하여 38° 선 이북에 대한 불의의 전면적인 무력침공을 개시하도록 하고 당일로 상임리사국인 이전 소련이 참가하지 않은 가운데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소집하여 공화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부당한 결의를 조작해냈다.

미국은 7월 7일에도 역시 이전 소련이 참가하지 않은 회의에서 조선전쟁에 유엔성원국들이 무력을 파견하고 그 무력을 《미국지휘하의 《련합합사령부》》에 소속시키며 그 사령부가 《유엔기발을 사용》하도록 할데 대한 결의를 조작해냈다. 7월 25일에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그 무슨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련합사령부》라는 명칭을 제멋대로 《유엔군사령부》라고 고쳐버렸다.

미국은 이와 함께 1950년 7월 《대전협정》을 조작하고 《유엔군사령부》의 이름으로 남조선당국의 작전지휘권을 빼앗아냈다. 미국이 이러한 《유엔군사령부》를 서울로 끌어들이는것은 조선반도문제를 국제화하고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하여 대조선 지배정책과 세계제패전략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보려는 흉심의 발로였다. 《유엔군사령부》는 이미 유엔총회로부터 해체선고를 받은 시대의 오물이다. 1975년 11월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데 대한 결의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4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유엔군사령부》를 얼토당토않게 명분들을 내걸고 존속시켜왔으며 더욱 확대강화해왔다. 미국은 북침전쟁연습때마다 《유엔군사령부》성원국들을 끌어들이며 국제사회앞에서 그 존재를 부각시켜보려고 서푼짜리 광대극을 벌여놓곤 하였다. 올해에도 미국은 도발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유엔군사령부》성원국의 명목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추종국가병력들을 참가시키고 남조선당국에 《유엔군사령부》 소속의 9개 나라와 《다자간 주둔군지위협정》을 체결하도록 강박하는 등 《유엔군사령부》의 존재를 부각시켜보려고 악을 써냈다. 남조선을 영구히 강점하고 공화국을 침략하며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군사적패권을 장악하려는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전략적기조이며 그 침략적정체와 위험성을 가리우는데 필요한것이 바로 《유엔군사령부》라는 허울이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의 사명을 지닌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세기를 이어가며 침략과 전쟁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고있는 미국과 같은 날강도국가는 세상에 없을것이다. 《유엔군사령부》는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의 견지로 보나 유엔이 국제기구로서의 체면을 회복하는 견지에서 보나 더 이상 존재할 명분이 없다. 이미 력사의 사형선고를 받은 《유엔군사령부》는 지체없이 해체되어야 마땅하며 미국은 남조선에서 모든 침략무력을 걷어가지고 당장 물러가야 한다. 리천봉

부각시켜보려고 서푼짜리 광대극을 벌여놓곤 하였다.

올해에도 미국은 도발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유엔군사령부》성원국의 명목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추종국가병력들을 참가시키고 남조선당국에 《유엔군사령부》 소속의 9개 나라와 《다자간 주둔군지위협정》을 체결하도록 강박하는 등 《유엔군사령부》의 존재를 부각시켜보려고 악을 써냈다.

남조선을 영구히 강점하고 공화국을 침략하며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군사적패권을 장악하려는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전략적기조이며 그 침략적정체와 위험성을 가리우는데 필요한것이 바로 《유엔군사령부》라는 허울이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의 사명을 지닌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세기를 이어가며 침략과 전쟁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고있는 미국과 같은 날강도국가는 세상에 없을것이다.

《유엔군사령부》는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의 견지로 보나 유엔이 국제기구로서의 체면을 회복하는 견지에서 보나 더 이상 존재할 명분이 없다.

이미 력사의 사형선고를 받은 《유엔군사령부》는 지체없이 해체되어야 마땅하며 미국은 남조선에서 모든 침략무력을 걷어가지고 당장 물러가야 한다.

리천봉